

眼鍼療法の穴位와 眼周圍 經穴 및 奇穴의 相關性에 關한 文獻的 考察

李正泰 · 蔡禹錫*

1. 緒論

眼鍼療法은 中國遼寧中醫學院의 彭氏가 創立한 새로운 微鍼療法이다.¹⁾ 이는 後漢時期의 名醫 華佗의 觀眼察病에 關한 論述로부터 起源되며, <內經>의 眼과 五臟六腑間의 相關理論과 經絡學說, 그리고 五輪八廓學說등을 理論根據로 하고 後天八卦의 理論을 應用하여 19年間의 臨床研究를 거쳐 形成된 것이다.¹⁾

眼鍼療法은 名稱만 보아서 眼科疾病을 治療하는 한가지 方法일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實際로는 單純하게 眼科의 病만 治療하는 것이 아니고, 各科의 疾病을 모두 治療할 수 있는 것이다.²⁾ 지금까지 治療해온 病例를 보면 眼鍼療法은 效果가 빠르고 無痛安全하며 특히 神經系統의 病症, 例를 들면 腦血栓形成, 神經痛, 麻痺, 振顫, 노이로제 등에 效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變態反應과 알레르기성 疾患에도 效果가 있었다.²⁾

眼鍼療法의 穴位갯수는 13個가 있고 總稱하여 眼鍼眶區十三穴이라 부르며, 穴位의 位置는 眼眶에서 2mm되는 곳에 있고¹⁾, 특히 上部 眼眶에 있는 穴位는 눈썹의 아래 1/2부분에 位置하고 있다.²⁾ 29號(直徑 0.34mm)의 0.5寸(15mm) 길이의 鍼으로 眼鍼眶區十三穴을 刺鍼하여 全身의 各種 疾病을 治療하는 目的을 達成한다.

上述한 바와 같이 眼鍼療法은 한가지의 새로운 治療方法이고 眼鍼穴位도 새로 確定發明된 것이며 그 治療의 範圍도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眼鍼療法의 새

로운 穴位들은 眼周圍 經穴 및 奇穴과 어떤 相關性이 있는가? 著者는 眼鍼療法이 나타나기 전에도 眼周圍 經穴이나 奇穴을 應用하여 全身 各科의 疾病을 治療한 先例가 있었는지 研究, 考察하여 眼鍼療法의 穴位의 位置와 主治作用등의 文獻學的 根據를 提示하고 眼鍼穴位와 眼部經穴 및 奇穴의 臨床應用의 規律을 찾아 臨床治療의 範圍와 深度 및 水準을 한층 높이는데 重要한 意義가 있다고 생각하여 古醫書에 나타난 眼周圍 經穴과 奇穴에 대하여 그들의 位置, 主治作用, 臨床應用등을 眼鍼穴位와 比較하면서 相互의 聯關性을 살펴본 結果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다음과 같이 報告하는 바이다.

2. 本論

2.1. 文獻의 資料 및 調查方法

2.1.1. 資料

- (1) 黃帝內經素問語釋
- (2) 鍼灸甲乙經校釋
- (3) 備急千金要方
- (4) 千金翼方
- (5) 外臺秘要方
- (6) 鍼灸資生經
- (7) 銅人腧穴鍼灸圖經
- (8) 扁鵲神應鍼灸玉龍經
- (9) 十四經發揮
- (10) 神應經
- (11) 鍼灸聚英發揮
- (12) 編註醫學入門
- (13) 醫學綱目
- (14) 鍼灸大成校釋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鍼灸學教室

- (15) 類經圖翼
- (16) 張氏醫通
- (17) 醫宗金鑑
- (18) 經穴彙解
- (19) 驗穴學
- (20) 鍼灸經外奇穴圖譜
- (21) 眼鍼療法

2.1.2. 調査方法

(1) 眼鍼療法에 관한 著書는 彭氏의 <眼鍼療法>¹⁾ 밖에 없기에 이 책에 나타난 眼鍼療法의 內容을 眼周圍 經穴 및 奇穴과 比較研究하는 主要한 基準으로 삼는다.

(2) <黃帝內經>을 비롯한 20種의 文獻中에 나타난 眼周圍 經穴 7個와 奇穴 8個에 對하여 穴位의 位置 및 主治作用, 臨床應用의 狀況 등의 內容을 調査하였다.

2.2. 調査內容

2.2.1. 眼鍼療法의 基本內容

2.2.1.1. 眼鍼療法의 理論的 根據¹⁾

眼鍼療法은 彭氏가 後漢 名醫 華佗의 眼科 觀眼察病에 관한 論述에서 啓發을 받아 觀眼識病의 診斷方法을 總結해 내고 나아가서는 發展되어 眼鍼療法으로 된 것이다. 華佗의 論述은 明 王肯堂의 <證治準繩·七竅門·目>에 收錄되었는데, “華元化가 이르기를, 目은 形態가 丸과 類似하고 瞳神은 가운데의 앞에 居하니, 日月이 東南方에서 밝고 西北方에서 어두운 것과 같다. 內에는 여섯개의 大絡이 있어 心, 肺, 脾, 肝, 腎, 命門이 各各 하나씩을 主하고, 中絡은 여덟개가 있으니 膽, 胃, 大小腸, 三焦, 膀胱으로 各各 하나씩을 主하며, 外로는 旁支細絡이 있어 그 數를 알 수는 없으나, 모두 腦를 貫하고 아래로 臟腑에 連하여 血氣의 往來를 通暢시켜 目を 滋養한다. 故로 무릇 病이 發하면 絲絡의 形色이 分明하여지므로 內의 어느 臟腑가 受病하였는지를 徵驗해 볼 수가 있으리라...^{註1)3)}” 라 하였다. 이 論述이 바로 眼鍼療

法의 起源이다.

그리고 內經으로부터 歷代醫書中에 眼의 生理와 病理에 對한 論述이 있다. 그 中 眼鍼療法의 理論的 根據로 되는 것을 보면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靈樞><大惑論>에서는 眼과 五臟六腑의 關係에 對하여 “五臟六腑의 精氣는 모두 目에 上注하여 精이 되므로, 精의 窠^{註2)}는 眼이 되고, 骨의 精은 瞳子가 되고, 筋의 精은 黑眼이 되고, 血의 精은 絡이 되고, 그 窠氣의 精은 白眼이 되고, 肌肉의 精은 約束시키면서 감싸주고, 筋骨氣血의 精은 脈과 더불어 系가 되어서, 위로는 腦에 屬하고 뒤로는 項中으로 出하니, 이것이 眼에 五臟六腑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모습이다.^{註3)4)}”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後世의 五輪八廓學說의 基原이다.

그리고 <靈樞><邪氣臟腑病形篇>에서는 眼과 經絡의 關係에 대하여 “十二經脈과 三百六十五絡에서, 그 血氣는 모두 面으로 上하여 空竅로 走하고 그 陽氣는 目으로 上走하여 睛이 된다.^{註4)5)}”라 하였고, <素問><五藏生成論>에서 “모든 脈은 다 目에 屬한다.^{註5)6)}” 하였으며, <靈樞><口問篇>에서 “目이란 것은 宗脈이 모인 곳이다.^{註6)5)}”라

註1) 華元化云: 目形類丸, 瞳神居中而前, 如日月之麗東南而晚西北也. 內有大絡六, 謂心, 肺, 脾, 肝, 腎, 命門各主其一; 中絡八謂膽, 胃, 大小腸, 三焦, 膀胱各主其一; 外有旁之細絡莫知其數, 皆懸貫於腦, 下連臟腑, 通暢血氣往來以滋於目. 故凡病發, 則有形色絲絡顯現, 而可驗內之何臟腑受病也……

註2) (새·짐승의) 보금자리, 동지. (사람의) 거처.

註3) 五臟六腑之精氣皆上注於目而爲之精, 精之窠爲眼, 骨之精爲瞳子, 筋之精爲黑眼, 血之精爲絡, 其窠氣之精爲白眼, 肌肉之精爲約束裹攝, 筋骨氣血之精而與脈并爲系, 上屬於腦, 後出於項中, 此則眼具五臟六腑也.

註4) 十二經脈, 三百六十五絡, 其血氣皆上于面而走空竅, 其經陽氣上走于目而爲睛.

註5) 諸脈皆屬於目

註6) 目者宗脈之所聚也.

하였다.

眼의 五輪八廓學說에 對한 論述은 여러 醫家들의 醫書에 나타났는데, 그 中 代表的인 것이 王肯堂의 <證治準繩>이다. 그리고 王은 五輪에 대하여 “五輪이란 金의 精이 上騰集結하여 氣輪이 되고, 木의 精이 上騰集結하여 風輪이 되고, 火의 精이 上騰集結하여 血輪이 되고, 土의 精이 上騰集結하여 肉輪이 되고, 水의 精이 上騰集結하여 水輪이 된 것이다. 氣輪이란 것은 目的 白睛으로 內로는 肺에 應하고 西方·庚辛·申酉의 令에 該當하며 肺는 主氣하므로 氣輪이라 한다. 金은 五行 中 가장 堅固하므로 白睛은 四輪보다 유독 堅固하다. 肺는 華蓋이며 部位가 至高하여 氣의 昇降을 主하는데, 조금이라도 拂鬱하게 되면 모든 病이 生한다. 血은 氣를 따라서 行하므로, 만약 氣가 拂鬱하면 火가 勝하여 血滯하고, 火가 勝하여 血滯하면 病變을 상상할 수 없게 된다. 火가 金을 克하면 金은 木의 外에 있기 때문에 氣輪이 先赤하게 되고, 金이 木을 克한 후에 病이 風輪에 미치게 된다. 金의 色은 白이므로 白澤이 있는 것이 順이 된다. 風輪이란 것은 白內의 青睛으로 內로는 肝에 應하고 東方·甲乙·寅卯·厥陰風木에 該當하므로 風輪이라 한다. 目은 肝의 竅이다. 時로는 春이고, 春에는 萬物이 生하여 色이 宇宙에 가득하며, 오로지 目만이 능히 이를 鑑別할 수 있으므로 肝에 屬竅하는 것이다. 風輪은 清脆하고 膏汁을 內包하여 瞳神을 涵養하는 기능이 있으며, 그 色이 靑하므로 靑瑩한 것이 順이 된다. 世人들은 黃濁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濕熱의 害이며, 오직 小兒의 色만이 가장 正確하나 성장하면서 食味하여 그 氣가 泄하고 色 또한 變하게 된다. 血輪이란 것은 目兩角의 大·小眥로 內로는 心에 應하고 南方·丙丁·巳午의 火에 該當하며 心은 主血하므로 血輪이라 한다. 무릇 火는 目에서 神光이 되므로 火가 衰하면 昏瞶의 疾患이 있고 火가 炎上하면 焚燥의 災殃이 있다. 비록 兩心^{註7)}은 있으나

正輪^{註8)}은 없다. 心은 君主^{註9)}이고 大眥에 通하므로 大眥가 赤한 것은 實火이고, 心包絡은 小心이고 小心은 相火이며 君을 代身하여 行令하고 小眥에 通하므로 小眥가 赤한 것은 虛火이다. 만약 君主가 拱默하면 相火는 저절로 淸寧하게 된다. 火色은 赤이니 오직 紅活한 것이 順이 된다. 肉輪이란 것은 兩脾^{註10)}로 中央·戊己·辰戌丑未의 土에 該當하며 脾는 肌를 主하므로 肉輪이라 한다.”고 하였고 脾에는 兩葉이 있어 水穀을 運動·消磨한다. 外에 또한 兩脾가 있어 動靜이 서로 應한다. 눈을 열면 萬用하니 이는 陽이 動하여 發生하는 것이요, 눈을 닫으면 萬寂하니 이는 陰이 靜하여 收斂하는 것이다. 土는 萬物을 藏하고 靜을 主하는 故로 脾가 合하면 萬物이 寂然히 思睡하니, 이것은 臟의 收納하고 靜하는 데 應하는 것이다. 土는 五行의 主인 故로 四輪 또한 脾가 包涵하는 바이다. 그 色은 黃이고 血을 얻으면 潤한 故로 黃澤한 것이 順이 된다.^{註11)3)}”고 하였고, 八廓에

註7) 兩心은 心의 經脈이 갈라져 內外眼角(눈구석, 눈초리)의 兩 通路에 通하는 것

註8) 正輪은 眼球이고 眼球의 內外 양측에 있는 눈구석과 눈초리는 眼球의 本輪에는 속하지 않는다.

註9) 『素問』「五臟生成篇」“黃帝問曰：願聞十二之相使貴賤何如？岐伯對曰……心者君主之官也……”

註10) 脾(bì, 音 閉)：眼睛의 감고 뜨는 것과 兩傍斜視를 가리킨다.

註11) 五輪, 金之精騰結而爲氣輪, 木之精騰結而爲風輪, 火之精騰結而爲血輪, 土之精騰結而爲肉輪, 水之精騰結而爲水輪. 氣輪者目之白睛是也, 內應於肺, 西方庚辛申酉之令, 肺主氣, 故曰氣輪. 金爲五行之至堅, 故白睛獨堅于四輪; 肺爲華蓋, 部位至高, 主氣之升降, 少有拂鬱, 諸病生焉. 血隨氣行, 氣若拂鬱則火勝而血滯; 火勝而血滯則病變不測. 火克金, 金在木外, 故氣輪先赤. 金木而後病及風輪也; 金色白, 故白澤者順也. 風輪者白內青睛是也, 內應於肝, 東方甲乙寅卯, 厥陰風木, 故曰風輪. 目竅肝. 在時爲春, 春生萬物, 色滿宇宙, 惟目能鑒, 故屬竅于肝也. 此輪清脆, 內包膏汁有涵養瞳神之功, 其色靑, 故靑瑩者順也.

對하여서는 “八廓은 八卦에 應하며 脈絡이 腦에 經緯하고 臟腑를 貫通하여 血氣를 條達往來함으로써 目を 滋養하게 된다. 廓이라는 것은 城郭의 모습과 같이 各各 往來하는 行路가 있으며 匡廓을 保護하고 防備하는 뜻이 담겨 있다. 乾은 西北에 居하여 그 絡은 大腸의 腑에 通하고 臟으로는 肺에 屬하며 肺와 大腸이 서로 陰陽을 이루어 上으로는 清純한 것을 連하고 下로는 糟粕을 運輸하여 傳送之官이 되는 까닭에 傳導廓이라 한다. 坎은 正北方으로 그 絡은 膀胱의 腑에 通하고 臟으로는 腎에 屬하며 腎과 膀胱이 서로 陰陽을 이루어 水의 化源을 主하며 津液을 傳輸하는 까닭에 津液廓이라 한다. 艮은 東北에 位하여 그 絡은 上焦의 腑에 通하고 臟으로는 命門과 配하며 命門과 上焦가 서로 陰陽을 이루어 百脈을 分輸하는 까닭에 會陰廓이라 한다. 震은 正東方으로 그 絡은 膽의 腑에 通하고 臟으로는 肝에 屬하며 肝膽이 서로 陰陽을 이루어 모두 清淨을 主하며 濁穢를 받지 아니하는 까닭에 清淨廓이라 한다. 巽은 東南에 位하여 그 絡은 中焦의 腑에 通하고 臟으로는 肝絡에 屬하며 肝과 中焦가 서로 陰陽을 이루어 肝絡은 通血하여 中焦를 滋養하고 分氣하여 化生하는 까닭에 養化廓이라 한다. 離는 正南方으로 그 絡은 小腸의 腑에 通하고 臟으로는 心에 屬하며

心과 小腸이 서로 臟腑를 이루어 陽을 受盛하는 胞가 되는 까닭에 胞陽廓이라 한다; 坤은 西南에 位하여 그 絡은 胃의 腑에 通하고 臟으로는 脾에 屬하며 脾胃가 서로 臟腑가 되어 水穀을 受納하고 養生하는 일을 主하는 까닭에 水穀廓이라 한다. 兌는 正西方으로 그 絡은 下焦의 腑에 通하고 臟으로는 腎絡과 配하며 腎과 下焦가 서로 臟腑를 이루어 陰精을 化生하는 根源에 關係 되고 主하는 까닭에 關泉廓이라 한다. 臟腑相配는 內經에 이미 그 定法이 있으나, 三焦를 肝과 腎에 分配하였는데 이것은 目에서의 精氣가 따르고 主하는 規律인 것이다. 무릇 目は 오로지 肝에서 開竅하고 腎에서 主하므로, 이 二絡에 分配한 것이다. 左目は 陽에 屬하고 陽道는 順行하므로 廓의 經位와 法象 또한 順行하고, 右目は 陰에 屬하고 陰道는 逆行하므로 廓의 經位와 法象 또한 逆行하게 되니, 兩目兩眇의 나뉘는 살피면 분명히 陰陽逆順의 法則을 볼 수 있다.¹²⁾³⁾”고 하였다.

注12) 八廓應乎八卦, 脈絡經緯於腦, 貫通臟腑, 以達血氣, 往來以滋于目, 廓如城郭然, 各有行路往來, 而匡廓衛御之意也. 乾居西北, 絡通大腸之腑, 臟屬肺, 肺與大腸相爲陰陽, 上連清純, 下輸糟粕, 爲傳送之官, 故曰傳導廓; 坎正北方, 絡通膀胱之腑, 臟屬于腎, 腎與膀胱相爲陰陽, 主水之化源, 以輸津液, 故曰津液廓; 艮位東北, 絡通上焦之腑, 臟配命門, 命門與上焦相爲陰陽, 分輸百脈, 故曰會陰廓; 震正東方, 絡通膽腑, 臟屬於肝, 肝膽相爲陰陽, 皆主清淨, 不受濁穢, 故曰清淨廓; 巽位東南, 絡通中焦之腑, 臟屬肝絡, 肝與中焦相爲陰陽, 肝絡通血, 以滋養中焦, 分氣以化生, 故曰養化廓; 離正南方, 絡通小腸之腑, 臟屬於心, 心與小腸相爲臟腑, 爲謂陽受盛之胞, 故曰胞陽廓; 坤位西南, 絡通胃之腑, 臟屬於脾, 脾胃相爲臟腑, 主納水穀以養生, 故曰水穀廓; 兌正西方, 絡通下焦之腑, 臟配腎絡, 腎與下焦相爲臟腑, 關主陰精化生之源, 故曰關泉廓; 臟腑相配, 內經已有定法, 而三焦分配肝腎者, 此目之精法也. 蓋目專竅于肝而主于腎, 故有二絡之分配焉. 左目屬陽, 陽道順行, 故廓之經位法象亦以順行, 右目屬陰, 陰道逆行, 故廓之經位法象亦以逆行, 察乎二目

世人多黃濁者乃濕熱之害, 惟小兒之色最正, 至長食味則泄其氣而色亦易矣, 血輪者, 目兩角大小皆是也, 內應於心, 南方丙丁巳午火, 心主血, 故曰血輪, 夫火在目爲神光, 火衰則有昏暝之患, 火炎則有焚燥之殃, 雖有兩心, 而無正輪, 心君主也, 通于大眇, 故大眇赤者實火也, 心包絡爲小心, 小心爲相火也, 代君行令, 通於小眇, 故小眇赤者虛火也, 若君主拱默, 則相火自然清寧矣, 火色赤, 惟紅活爲順也, 肉輪者兩脾是也, 中央戊己辰戌丑未之土, 脾主肉, 故曰肉輪, 脾有兩葉, 運動磨化水穀, 外亦兩脾, 動靜相應, 開則萬用, 如陽動之發生; 閉則萬寂, 如陰靜之收斂, 土藏萬物而主靜, 故脾合則萬有寂然而思睡, 此臟納歸靜之應也, 土爲五行之主, 故四輪亦脾所包涵, 其色黃, 得血而潤, 故黃澤爲順也.

그림 1) 左眼八區示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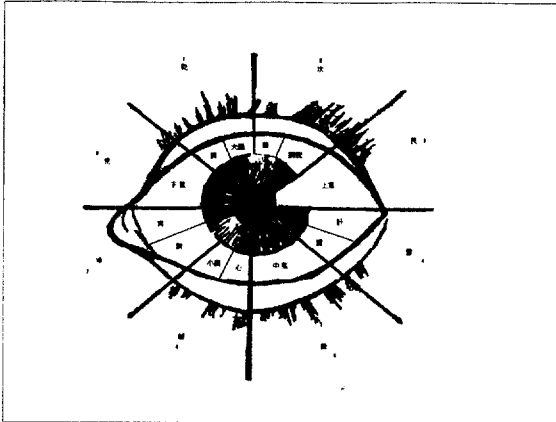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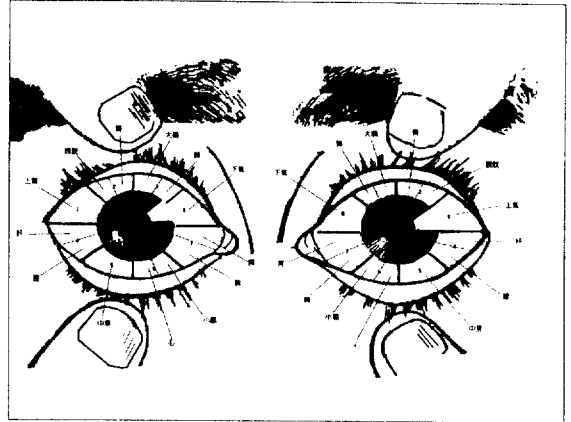


그림 2) 左右眼八區示意圖



2.2.1.2. 眼區의 劃分¹⁾

上述한 理論에 根據하고 八廓이 八卦에서 來源되었기에 後天八卦를 利用하여 眼區를 八個區로 劃分하였다. 具體的인 方法은 다음과 같다.

두 눈을 正面으로 바라본 狀態에서 瞳孔의 中心을 지나 하나의 水平線을 긋고, 內外眦를 지나도록 延長하고 또 瞳孔中心을 지나 線을 긋되 이 水平線과 垂直되게 하고 上下 眼眶을 지나도록 延長시킨다. 그리하여 眼區를 4個의 象限으로 나누게 되었고 다시 4個의 象限을 2等分하여 8個의 區域이 똑같은 象限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眼의 8個의 經區이다.

眼區를 劃分할 때 사람이 頭北足南으로 반듯하게 누운 狀態를 取한다. 그러면 左眼의 西北方은 곧 乾卦에 該當되고 正北은 坎卦에, 東北은 艮卦에, 正東은 震卦에, 東南은 巽卦에, 正南은 離卦에, 西南은 坤卦에, 正西는 兌卦에 該當된다. 臟腑와의 關係를 보면 乾屬金하고 肺與大腸屬金하며, 金生水하고 坎爲水하고 腎膀胱屬水하며 水生木하고 正東方肝膽屬木하며 木生火하고 正南方心小腸屬火하며 火生土하고 西南方坤爲地하고 脾胃屬土한다. 그리고 東北艮爲山하고 山은 高峰이기에 上焦로 定하며 東南巽爲風하여 中焦로

定하고 正西兌爲澤하여 下焦로 定한다." 八區의 分布狀況는 1區부터 8區까지 아래의 그림과 같다.

2.2.1.3. 觀眼識病¹⁾

觀眼識病은 經絡과 眼의 聯系를 依據로 하고 華佗가 提出한 "察目可驗何臟腑受病"의 方法의 基礎위에 長期的인 臨床經驗을 結合시켜 形成된 것이다.

正常人의 眼의 白睛위의 絡脈은 가늘고 뚜렷하지 않는데 臟腑나 肢體의 어떤 部位에 病變이 發生한 後에는 그 絡脈들이 經絡의 氣血運行的 이상으로 말미암아 影響을 받아 眼의 白睛위에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白睛위의 絡脈의 形態와 색깔을 觀察하고 그것이 나타난 眼의 具體的인 經區의 藏府 및 經絡등의 屬性과 結合하여 疾病을 診斷할 수 있다. 이것을 觀眼識病이라 한다.

2.2.1.4. 眼鍼療法の 穴位

眼鍼 8區中에서 1·2·4·6·7區는 各各 肺와 大腸, 腎과 膀胱, 肝과 膽, 心과 小腸, 脾와 胃로서 各各 經區의 절반씩 占하고, 3·5·8區는 上焦, 中焦, 下焦로서 各各 하나의 完整한 經區를 모두 占한다. 眼鍼의 穴位는 별도로 名稱을 붙이지 않고 某區에 屬하면 某區穴이라고 부르는데, 例를 들면 '上焦區', '肝區' 등이라고 하며, 總括하여 '眼鍼區十三穴'이라

兩眦之分則昭然可見陰陽順逆之道矣.

고 부른다.¹⁾

眼鍼療法の 穴位의 具體的인 位置는 眼眶 밖에 2mm되는 곳에 있고¹⁾, 上部 眼眶에 있는 穴位는 눈썹의 아래 1/3部分에 位置하고 있다.²⁾

2.2.1.5. 取穴의 原則¹⁾

모두 3가지가 있다.

2.2.1.5.1. 循經取穴

眼鍼에서 經을 따라서 取穴한다는 것은 疾病이 어느 經에 屬했는지를 確診해야 한다. 즉 그 經區의 穴位를 取하거나 혹은 同時에 症에 대한 몇개 經區를 取하는 것이다.

2.2.1.5.2. 看眼取穴

觀眼識病에 根據하여, 經區의 各 絡脈의 形狀이나 色을 보아 가장 明確한 部位의 區穴을 取한다.

2.2.1.5.3. 病位取穴

上·中·下 三焦의 境界를 살펴서 病이 있는 部位, 즉 上·中·下의 區에 鍼刺한다. 가령 頭痛, 項強, 不能舉臂, 胸痛 등은 모두 上焦區에 鍼刺하고 胃痛, 脹滿, 脇痛 등은 모두 中焦區에 鍼刺하고, 臍下, 小腹, 腰腎 및 下肢, 生殖·泌尿系統疾患에는 下焦區에 鍼刺한다.

2.2.1.6. 刺鍼方法¹⁾

29號(直徑 0.34mm)의 0.5寸(15mm) 길이 의 鍼으로 點刺法, 眶內刺法, 沿皮橫刺法, 雙刺法, 表裏配合刺法, 壓穴法, 眼區埋鍼法, 電鍼法, 繆刺法 등의 方式으로 刺鍼할 수 있고, 提插, 捻轉, 開闔 등의 手法을 모두 使用하지 않으며 一般的으로 5~10분간 留鍼한다.

2.2.1.7. 適應症 및 配穴治療²⁾

眼鍼療法은 止痛消腫하고 安神定志하며 理氣和血하고 通經活絡하는 作用이 있다. 病勢가 危急하여 救急하는 期間이나 精神이 錯亂

되거나 또는 氣血이 虛脫하여 絕脈이 나타난 者를 제외하고는 모두 眼鍼治療이 適用된다. 그 中에서도 效果가 빠른 適應症과 配穴治療 狀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中風偏癱 : 上·下焦區
2. 急性扭傷 : 下焦區
3. 落枕 : 兩上焦區
4. 降血壓 : 兩肝區
5. 痛經 : 兩下焦區
6. 遺尿或尿頻 : 下焦區, 肝區, 腎區.
7. 不整脈⁽¹³⁾ : 兩心區.
8. 橫膈膜筋痙攣 : 中焦區.
9. 胃痙攣 : 中焦區.
10. 頭痛 : 上焦區. 偏頭痛은 膽區, 後頭痛은 膀胱區

그 외에도 眼鍼療法の 適應症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目赤痛 : 肝區.
2. 近視 : 肝區
3. 眼瞼下垂 : 脾區, 上焦區.
4. 鍼眼 : 脾區.
5. 電光性眼炎 : 上焦區, 肝區.
6. 鼻炎 : 上焦區, 肺區.
7. 音啞 : 肺區, 上焦區.
8. 喉痛 : 肺區, 上焦區.
9. 舌痛 : 心區.
10. 牙痛⁽¹⁴⁾ : 上焦區
11. 耳聾, 耳鳴 : 肝區, 上焦區.
12. 三叉神經痛 : 上焦區
13. 面肌痙攣 : 上焦區, 脾區.
14. 面癱 : 兩上焦區.
15. 項強 : 兩上焦區, 膀胱區.
16. 五十肩 : 兩上焦區, 大腸區.
17. 上肢不能舉 : 上焦區.
18. 老年慢性氣管炎 : 肺區.
19. 胸痛 : 上焦區, 心區.
20. 背痛 : 上焦區, 膀胱區.
21. 腰痛 : 下焦區, 腎區.

注13) 中醫 : 心律不齊

注14) 齧齒에는 效果가 없다.

22. 尿路結石腰痛 : 下焦區, 腎區.
23. 腰脇痛 : 中焦區, 肝區.
24. 左骨神經痛 : 下焦區, 患側膽區.
25. 胃痛 : 中焦區, 胃區.
26. 膽囊炎 : 膽區.
27. 膽道蛔蟲 : 肝·膽區.
28. 胰腺炎 : 中焦區, 脾區.
29. 嘔吐 : 中焦區, 胃區.
30. 拒食症 : 胃區
31. 便瀉 : 大腸區.
32. 痢疾 : 下焦區, 大腸區.
33. 便秘 : 大腸區
34. 膝關節痛 : 下焦區
35. 下肢痿軟 : 下焦區, 腎區.
36. 足跟痛 : 下焦區, 膽區.
37. 神經衰弱 : 上焦區, 腎區, 心區.
38. 月經不調 : 下焦區, 肝區, 腎區.
39. 陽痿 : 下焦區.
40. 十二指腸球部潰瘍 手術後遺症(上腹部隱痛) : 小腸區

2.2.2. 20種의 文獻에 對한 調查內容

2.2.2.1. 黃帝內經素問語釋⁶⁾

[攢竹]

《氣府論》 足太陽脈氣所發者七十穴 : 兩眉頭各一

[四白]

《氣府論》 足陽明脈氣所發者六十八穴 : 面髑骨空各一

[睛明]

《氣府論》 手太陽脈氣所發者三十六穴 : 目內眦各一

[絲竹空]

《氣府論》 手少陽脈氣所發者三十二穴 : 眉後各一

[承泣]

《氣府論》 任脈之氣所發者二十八穴 : 目下各一

《刺瘡篇》 刺瘡者, 必先問其病之所先發者, 先刺之. 先頭痛及重者, 先刺頭上及兩額兩眉間

注15) 出血.

2.2.2.2. 鍼灸甲乙經校釋⁷⁾

[陽白]

在眉上一寸直瞳子, 足少陽, 陽維之會. 刺入三分, 灸三壯. (《上冊·卷之三·面凡三十穴第十》)

頭目瞳子痛, 不可以視, 挾項強急, 不可以顧, 陽白主之. (《下冊·卷之七·六經受病發傷寒熱病第一中》)

[攢竹]

一名員柱, 一名始光, 一名夜光, 又名光明, 在眉頭陷者中, 足太陽脈氣所發. 刺入三分, 留六呼, 灸三壯. (《上冊·卷之七·同陽白》)

頭風痛, 鼻衄衄, 眉頭痛, 善嚏, 目如欲脫, 汗出寒熱, 面赤, 頰中痛, 項椎不可左右顧, 目系急, 癧癧, 攢竹主之. (《下冊·卷之七·六經受病發傷寒熱第一中》)

小兒痲發, 目上插, 攢竹主之. (《下冊·卷之十二·小兒雜病第十一》)

[絲竹空]

一名目窠, 在眉後陷者中, 足少陽脈氣所發. 刺入三分, 留三呼, 不宜灸, 灸之不幸, 令人目小及盲. (《上冊·卷之三·面凡三十九穴第十》)

眩, 頭痛, 刺絲竹空主之. (《下冊·卷之十·陽受病發風第二下》)

小兒臍風, 目上插, 刺絲竹空主之. (《下冊·卷之十二·小兒雜病第十一》)

[睛明]

一名漏孔, 在目內眦外, 手足太陽, 足陽明之會. 刺入六分, 留六呼, 灸三壯. (《上冊·卷之三·面凡三十九穴第三》)

目不明, 惡風, 目淚出憎寒, 目痛目眩, 內眦赤痛, 目眈眈無所見, 眦痒痛, 淫膚白翳, 睛明主之. (《下冊·卷之十二·足太陽陽明手少陽脈動發目病第四》)

[瞳子窠]

在目外去眦五分, 手太陽, 手足少陽之會, 刺

注15) 兩眉間 : 印堂穴을 말하는 것 같은데 『鍼灸大成』에서는 攢竹穴이라 했음.

入三分，灸三壯。（《上冊·卷之三·面凡三十九穴第十》）

〔承泣〕

一名顴穴，一名面窳，在目下七分，直目瞳子，陽蹻，任脈，足陽明之會，刺入三分，不可灸。（《上冊·卷之三·面凡三十九穴第十》）

目不明，淚出，目眩憒，瞳子痒，遠視眩暈，昏夜無見，目瞤動，與項口參相引，喎僻不能言，刺承泣。（《下卷·卷之十二·足太陽陽明手少陽脈動發目病第四》）

〔四白〕

在目下一寸，向頰骨顴空，足陽明脈氣所發，刺入三分，灸七壯。（《上冊·卷之三·面凡三十九穴第十》）

目痛口僻，淚出，目不明，四白主之。（《下冊·卷之十二·足太陽陽明手少陽脈動發病第四》）

2.2.2.3. 備急千金要方⁸⁾

〔攢竹〕

在眉頭陷端。

〔睛明〕

精明在目內眥外。

〔陽白〕

在眉上一寸直瞳子。

〔承泣〕

在目下七分直瞳子。

〔四白〕

在目下一寸。

〔絲竹空〕

在眉後陷中不灸。

〔瞳子膠〕

在目外去眥五分 一名太陽 一名前關。

（以上《卷八十七·鍼灸》）

〔睛明〕

視眩暈無見眥癢痛淫膚白翳，精明主之。

〔瞳子膠〕

青盲無所見遠視眩暈目中淫膚白膜覆，瞳子巨窳主之。

〔承泣〕

目不明淚出目眩憒瞳子癢遠視眩暈昏夜無見目瞤動與項口參相引喎僻口不能言，刺承泣。

〔四白〕

目痛僻淚不明，四白主之。

〔當容〕

肝勞邪氣眼赤，灸當容百壯，兩邊各爾穴在眼小眥近後當耳前三陽三陰之會處以兩手按之有上下橫脈則是與耳前相對是也。

（以上《卷之十五·七竅病方》）

〔攢竹〕

攢竹 少海 後頂 強間主癩發癧癢狂走不得臥心中煩。

〔絲竹空〕

兌端 斷交 承漿 大迎 絲竹空 恩會 天樞 商丘主癩疾嘔沫狂熱瘰互引。

〔絲竹空〕

絲竹空 通谷主風癩癧疾涎沫狂煩滿。

〔攢竹〕

攢竹 五處 正營 上營 缺盆 中府主汗出寒熱。

（以上《卷九十二·鍼灸》）

〔攢竹，絲竹空〕

攢竹 承光 腎俞 絲竹空 緊脈 和窳主風頭痛。

〔攢竹〕

少澤 前各 後谿 陽谷 完骨 崑崙 小海 攢竹主項強急痛不可以顧。

〔攢竹〕

攢竹 斷交 玉枕主面赤頰中痛。

〔攢竹，絲竹空，睛明〕

攢竹 睛明 百會 委中 崑崙 天樞 本神 腎俞 內關 心輸 復留 太泉 完骨 中渚 大杼 頤厭 通谷 曲泉 後頂 胃輸 絲竹空主目眩暈不明惡風寒。

（以上《卷九十·鍼灸》）

〔陽白〕

主目瞳子痛癢遠視眩暈夜無所見。

〔睛明，承泣，四白，瞳子膠〕

睛明 斷交 承泣 四白 風池 去油 瞳子窳 上星 肝俞主目淚出多眵瞽內眥赤痛癢生白膚翳。

〔陽白〕

陽白 上星 本神 大都 曲泉 俠谿 三間 前谷
攢竹 玉枕主目系急目上挿。

〔絲竹空〕

絲竹空 前頂主目上挿憎風寒。

〔承泣〕

承泣主目瞶動與項口相引。

(以上《卷九十鍼灸》)

〔四白〕

上關 下關 四白 百會 顛息 翳風 耳門 頤厭
天窓 陽谿 關衝 液門 中渚主耳痛鳴聾。

〔承泣，四白〕

承泣 四白 巨窞 禾窞 上關 大迎 顛骨 強間
風池 迎香 水溝主口喎不能言。

(以上《卷九十鍼灸》)

2.2.2.4. 千金翼方⁹⁾

〔攢竹〕

攢竹^{注16)}在眉頭陷中。

〔睛明〕

在目內眥。

〔陽白〕

在眉上一寸直瞳子。

〔承泣〕

在目下七分直瞳子不灸。

〔四白〕

在目下一寸。

〔絲竹空〕

在眉後陷中不灸。

〔瞳子膠〕

瞳子膠在目外眥五分

(以上《卷二十六鍼灸上》)

〔攢竹〕

主目視不明眈眈目中熱痛及瞶。鍼入一分，留一呼，瀉三吸，徐徐出之，忌灸，宜出血塗塩。

〔睛明〕

膚瞽白膜覆瞳人目闇及目米雀目冷淚，目視不明努肉出，皆鍼睛明。入一分半，留三呼，瀉五吸，冷者先補後寫，復補之，雀目者可以留十

吸，然後速出。

〔承泣〕

視眼喎不正口喎目瞶面動葉葉然眼赤痛目眈眈冷熱淚目臉赤，皆鍼承泣在目下七分匡骨中，當瞳子直下陷中入二分半，得氣即寫忌灸。

(以上《卷二十六鍼灸中》)

〔陽白，曲眉(即印堂)〕

面上游風如蟲行，習習然起，則頭旋眼暗，頭中溝壑起，灸天窓，次兩眉上一寸當銅人，次曲眉在兩眉間，次手陽明，次足陽明，各灸二百壯。(《卷二十六鍼灸上》)

〔鼻交頰中〕

鼻交頰中一穴，鍼入六分，得氣即瀉，留三呼，瀉五吸，不補，亦宜灸，然不如鍼。此主癩風聳弓反張，羊鳴，大風青風面風如蟲行，卒風，多睡，健忘，心中憤憤，口噤闇倒不識人，黃疸急黃，八種大風，此之一穴，皆主之，莫不神驗，慎酒麵生冷醋滑猪魚蒜蕎麥漿水。(《卷二十六鍼灸上·灸聳弓反張法》)

〔顛顛〕

顛顛在眉眼眉中間，上下有來去絡脈，是鍼灸之治痘氣溫病夾人中火鍼，治馬黃疸通身並黃語言已不轉者。(《卷二十六鍼灸上·黃疸第九》)

〔當容〕

肝勞邪氣眼赤，灸當容二百壯，兩邊各爾。在眼後耳前三陰三陽之會處，以手按之有上下橫脈，是與耳門相對也。(《卷二十六鍼灸中·肝病第一》)

2.2.2.5. 外臺秘要方¹⁰⁾

〔陽白〕

在眉上一寸直瞳子灸三壯主頭目瞳子不可以視頸項強急不可以顛。

〔絲竹空〕

一名目膠，在眉後陷者中足少陽脈氣所發不可灸不幸使人目小及盲，眩頭痛互引目中赤眈眈騰風風癩疾狂煩滿。

〔瞳子膠〕

瞳子膠，一名後曲，在目外去眥五分手足少陽

注16) 攢竹應爲攢竹

之會，灸三壯主青盲無見遠視眩暈目中膚翳白膜

〔承泣〕

一名谿穴，一名面膠，在目下七分，直瞳子，躡脈任脈足陽明之會。甄權云，在目下八分，禁不宜灸，無問多少，三日以後眼下大如拳息肉長桃許大至三十日即定，百日都不見物，或如升大，目不明，淚出，目眩瞽，瞳子癢，遠視眩暈，昏夜無所見，目瞶動與項口互引喎僻不能言。

〔四白〕

在目下一寸，足陽明脈氣所發，灸七壯，主目痛口僻，淚出，目不明。

〔睛明〕

一名淚孔，在目內眦，手足太陽陽明之會，灸三壯，主目不明，惡風淚出，憎寒頭痛，目眩瞽，內眦赤痛，目眩暈無所見，眦癢痛疼，白膚翳。甄權云，不宜灸，甄權，千金，楊操同。

〔攢竹〕

一名員柱，一名始光，一名夜光，一名明光，在眉頭陷者中，足太陽脈氣所發，灸三壯，主風頭痛，鼻衄衄，眉頭痛，善嚏，目如欲脫，汗出惡寒，面赤頰中痛，項椎不可左右顧，目系急，癩癢癩疾，互引反折，戴眼及眩，狂不得臥，意中煩，目眩暈不明，惡風寒，癩發目上插，痔痛。

2.2.2.6. 鍼灸資生經¹¹⁾

〔攢竹〕

攢竹二穴，一名始光，一名光明，一名員柱，在兩眉頭少陷宛宛中，不宜灸，鍼一分，留三呼，瀉三吸，徐徐出鍼，宜以細三稜鍼刺之，宣洩熱氣，三受刺目大明，忌同。明云，宜細三稜鍼，鍼三分出血，下云，灸一壯。

〔睛明〕

睛明二穴，一名淚孔，在目內眦，鍼寸半，留三呼，雀目者可久留鍼，然後速出，禁灸，忌同。明云，目內眦頭外畔陷宛宛中，鍼分半，留三呼，補不宜灸。一云，在目內眦外一分。

按明堂云，鍼一分半，銅人及之入一寸半，二

者必有一誤，予觀面部所鍼，淺者入一分，深者四分爾，而素問氣府論注亦云刺入一分，則是銅人誤寫一分爲一寸也。

〔陽白〕

陽白二穴，在眉上一寸，灸三壯，鍼入二分。

〔承泣〕

承泣二穴，在目下七分，直目瞳子陷中，禁鍼，鍼之令人目烏色，可灸三壯，火主如大麥，忌同。明云，鍼入四分半，得氣即瀉，特不宜灸，若灸，無問多少，三日後，眼下大如拳，息肉日加長，如桃大，至三十日定，不見物妨，或如五升許大。

銅人云，此穴可灸三壯，禁鍼，鍼之令人目烏色，明堂乃云，鍼入四分半，特不宜灸，灸後眼下大如拳。二家必各有所據，未知其孰是，不鍼不灸可也。

〔四白〕

四百二穴，在目下一寸，灸七壯，鍼三分，凡用鍼穩審方得，下鍼深即令人目烏色。

〔絲竹空〕

絲竹空二穴，一名目膠，在眉後陷中，鍼三分，留二呼，宜瀉不宜補，禁灸，使人目小，又令目無所見。

〔瞳子膠〕

瞳子膠二穴，在目外眦五分，灸二壯，鍼三分。素注在目外，去眦五分。

(以上《鍼灸資生經第一面》)

〔攢竹〕

攢竹療神邪鬼魅。見狂 (《鍼灸資生經第四癩邪》)

攢竹，小海，後頂，強間，主癩發癧癧狂走。(《鍼灸資生經第四癩狂》)

〔絲竹空〕

絲竹空，通谷，主風癩癧疾，涎沫狂煩 (《鍼灸資生經第四癩癧》)

〔攢竹〕

神庭，上星，百會，聽會，聽宮，偏歷，攢竹，本神，築賓，陽谿，後頂，強間，腦戶，絡却，玉枕，主癩疾嘔。

〔絲竹空〕

兌端，斷交，承漿，大迎，絲竹空，凶會，天樞，商丘，主癩疾嘔沫，寒熱瘧互引。

〔攢竹(兩眉頭)〕

小兒急驚風，灸前頂三壯，若不愈，須灸兩眉頭及人中穴。秦承祖灸小兒驚癇等。見鬼邪

(以上《鍼灸資生經第四·癩疾》)

〔絲竹空〕

神庭，絲竹空，治風癇，目戴上不識人。(《資生經第四·風癇五癇》)

〔攢竹〕

攢竹療頭目風眩(《第四·風眩》)

〔承泣〕

口喎，刺承泣。(《第四·中風不語》)

〔絲竹空〕

絲竹空，治涎沫。

絲竹空，通谷，商丘，主嘔沫。(《第四·痰涎》)

〔攢竹〕

攢竹，禾窳，療尸厥。(《第五·尸厥》)

〔陽白〕

陽白，治背膝寒慄，重衣不得溫。銅(《第五·膝理》)

〔四白〕

上關，下關，四白，百會，顛息，翳風，耳門，頤厭，天窓，陽谿，關衝，液門，中渚主耳鳴聾。子(《第六·耳鳴》)

〔四白〕

上關，下關，四白，百會，顛息，翳風，耳門，曲池，頤厭，天窓，陽谿，關衝，液門，中渚，主耳痛。(《第六·耳痛》)

〔陽白〕

主目瞳子痛痒。子見不明

治頭目痛目眇。銅

〔四白〕

主目痛僻淚目不明。

(以上《第六·目痛》)

〔陽白，攢竹〕

陽白，上星，本神，大都，曲泉，俠谿，三間，前谷，攢竹，玉枕，主目系急，目上搐。(《第六·目上視》)

〔絲竹空〕

絲竹空，前頂，主目上插，憎風寒。(《第六·目上視》)

〔承泣〕

主目瞤動。

〔攢竹，承泣〕

攢竹治瞤動，目不明，淚出目眩瞽，瞳子癢，遠視眩暈，昏夜無見，目瞤動，刺承泣。

(以上《第六·目上視》)

〔承泣〕

主目淚出。

治瞤冷淚。

目淚出，刺承泣。

〔睛明〕

主目遠視不明。

(以上《第六·目淚出》)

〔絲竹空〕

治目眩頭痛目赤，視物眩暈，風癇目戴上不識人，眼睫毛倒，發狂，吐涎沫，發即無時。

〔四白〕

治頭痛目眩。明同

四白，湧泉，大杼，療頭痛目眩。銅同

〔攢竹〕

療頭目風眩，眉頭痛，翳衄，目眩無遠見。

〔承泣〕

主目眩(以上《第六·目眩》)

〔攢竹〕

治目眩視物不明，眼中赤痛及瞤動，又云，三度以細稜鍼刺之，目大明。

攢竹，腎俞，崑崙，療目眩暈。

〔承泣〕

主目不明，淚出，目眩瞽，瞳子癢，遠視眩暈，昏夜無見。甲乙

〔陽白〕

主目瞳子癢，遠視眩暈，昏夜無見。

〔攢竹，睛明，絲竹空〕

攢竹，睛明，委中，崑崙，天樞，本神，大杼，頤厭，通谷，曲泉，後頂，絲竹空，主目眩暈不明，惡風寒。

(以上《第六·目不明》)

〔承泣，四白，瞳子膠，睛明〕

肝俞，上星，風池，睛明，斷交，承泣，四白，巨窞，瞳子膠，主目淚出多眵瞖，內眥赤痛癢，生白膚翳。

〔四白〕

肝俞，四白，關衝，前谷，治目生白翳。

〔瞳子膠〕

丘墟，瞳子膠，治目中翳膜。

〔攢竹〕

治眼赤痛。

〔睛明，瞳子膠〕

睛明，後谿，目窓，瞳子膠，主目赤。

(以上《第六·目翳膜》)

〔瞳子膠〕

商陽，巨窞，上關，承光，瞳子膠，絡却，主青盲無所見。

〔瞳子膠〕

治青盲無所見，遠視眈眈，目中翳膜，頭痛，目外眥皆赤痛。

〔睛明〕

睛明 治疳眼_綱，睛明，治小兒雀目疳眼。

(以上《第六·青盲》)

〔承泣，四白〕

承泣，四白，巨窞，上關，大迎_{綱同}，顴膠，強間，風池，迎香，水溝，主口喎僻不能言。_干

〔承泣〕

治口眼喎斜，目瞶而葉葉動牽口眼，目視眈眈，冷淚眼皆赤痛。_{明同}

(以上《第六·口眼喎》)

〔承泣〕

承泣等，地倉，大迎，魚際，通里，主不能言。(《第六·口瘡病》)

〔攢竹〕

神庭，攢竹，迎香，風門，陷谷，至陰，通谷，主鼻衄涕出。(《第六·鼻涕出》)

〔攢竹〕

療鼻衄。(見《第六·鼻衄》)

〔攢竹〕

攢竹等，主頰痛。_{見面痛}(《第六·唇頰腫痛》)

〔攢竹，絲竹空〕

腎俞，攢竹，承光，絲竹空，癭脈，和窞，主風頭痛。(《第六·頭風》)

〔絲竹空，四白〕

絲竹空，魚際，四白，天衝，三焦俞，風池，治頭痛。(《第六·頭痛》)

〔攢竹〕

攢竹，顴交，五枕，主面赤頰中痛。(《第六·面痛》)

2.2.2.7. 銅人臉穴鍼灸圖經¹²⁾

〔攢竹二穴〕

一名始光，一名光明，一名員柱，在兩眉頭陷中足太陰脈氣所發，治目眈眈視物不明，眼中赤痛及臉瞶動，鍼入一分，留三呼，瀉三吸，徐徐而出鍼，不宜灸，宜以細三稜鍼刺之，宣洩熱氣，三度刺，目大明，忌如前法。

〔睛明二穴〕

一名淚孔，在目內眥，手足太陽少陽陽明五脈之會，治攀睛翳膜覆瞳子，惡風淚出，目內眥癢痛，小兒雀目疳眼，大人氣眼冷淚瞶目視物不明，大眥努肉侵睛，鍼入一寸五分，留三呼，禁不可灸，雀目者，宜可久留鍼，然後速出鍼，忌如前法。

〔陽白二穴〕

在眉上一寸，直目瞳子，足少陽陽維之會，治頭目痛，目眵，背膝寒慄，重衣不得溫，可灸三壯鍼二分。

〔承泣二穴〕

在目下七分，直瞳子陷中，陽交脈任脈足陽明之會，瞳子癢(?)，喎斜目瞶，面葉葉動牽口眼，目視眈眈，冷淚，眼皆赤痛，禁不宜鍼，鍼之令人目烏色，可灸三壯，火主如大麥，忌如常法。

〔四白二穴〕

在目下一寸，直目瞳子。(《卷上·十二經脈氣穴經絡圖》)

在目下一寸，足陽明脈氣所發，治頭痛目眩，眼生白翳，微風目瞶動不息，可灸七壯，鍼入三分，凡用鍼穩審方得下鍼也，若鍼深即令人目烏色。

〔絲竹空二穴〕

一名目膠，在眉後陷中，足少陽脈氣所發，禁不可灸，灸不幸使人目小，又令人目無所見，治目眩頭痛，目赤視物眩暈，風癩目戴上不識人，眼睫毛倒，發狂吐涎沫，發即無時，鍼入三分，留三呼，宜瀉不宜補。

〔瞳子膠二穴〕

在目外眥五分，手太陽手足少陽之會，治青盲目無所見，遠視眩暈，目中膚翳白膜，頭痛，目外眥赤痛，可灸三壯，鍼入三分。

2.2.2.8. 扁鵲神應鍼灸玉龍經¹³⁾

〔印堂〕

頭風嘔吐眼昏花，穴在神庭不差，子女驚風皆可治，印堂刺入艾來加。

印堂在兩眉間宛宛中，鍼一分，沿皮先透左攢竹，補瀉後轉歸元穴，退右攢竹，依上補瀉，可灸七壯，小兒驚風灸七壯，大哭者爲效，大哭者難治，隨有症急慢補瀉，急者慢補，慢者急瀉，通神之穴也。

〔絲竹空〕

頭風偏正最難醫，絲竹金鍼亦可旋，更要沿皮透率谷，一鍼兩穴世間稀。

絲竹在眉後入髮際陷中，沿皮向後透，率谷在耳尖上一寸，鍼三分，鍼七壯，開口刺，痛則瀉，眩暈則補。

〔攢竹〕

眉目疼痛不能當，攢竹沿皮刺不妨，若是目疼亦同治，刺入頭維疾自康。

攢竹在眉尖陷中，鍼二分，沿皮向魚腰，瀉多補少，禁灸。

〔睛明，魚尾，太陽〕

眼睛紅腫痛難熬，怕日羞明心自焦，但刺睛明魚尾穴，太陽出血病全消。

睛明在目內眥淚孔中，鍼入一分半，畧鍼向鼻瀉，禁灸。

魚尾即瞳子膠，在日上眉外尖，鍼一分，沿皮向內透魚腰，瀉，禁灸。

太陽在額紫脈上，可出血。

〔攢竹〕

口風頭暈面赤不欲人言，攢竹瀉，三里瀉，未

愈瀉合谷，風池。

〔陽白〕

頭風如破眉目間痛，陽白，解谿，合谷並瀉。

〔太陽〕

眼目暴赤腫痛眼窠紅，太陽出血，大小骨空灸

〔睛明，魚尾〕

眼痛睛明及魚尾，陰郄盜汗却堪聞。

〔攢竹〕

胸結身黃在涌泉，腦昏目赤攢竹穿。

2.2.2.9. 十四經發揮¹⁴⁾

〔承泣〕

在目下七分，直瞳子。

〔四白〕

在目下一寸，直瞳子。

〔睛明〕

在目內眥。

〔攢竹〕

在眉頭陷中。

〔絲竹空〕

在眉後陷中。

〔瞳子膠〕

在目外眥五分。

〔陽白〕

在眉上一寸，直瞳子

〔睛明〕

見足陽經手足太陽少陽足陽明五脈之會。

(以上《卷中·十四經脈氣所發篇》)

〔承泣〕

任脈按內經云，任脈所發者二十八穴，經關一穴，頭有二十七穴，內顴交一穴屬督脈，承泣二穴屬足陽明躄脈，故止載二十四穴。穴已見前

(《卷下·奇經八脈篇·任脈》)

〔承泣〕

陽躄脈者……又與任脈足陽明會於承泣目下七分，以上爲陽躄脈之所發。凡二十穴，陽交脈病宜刺之。(《卷下·奇經八脈篇·陽躄脈》)

〔睛明〕

陰交脈者……入缺盆，上出人迎之前，入鼻屬目內眥，合於太陽，女子以之爲經，男子以之爲

絡。(《卷下·奇經八脈篇·陰蹻脈》)

〔陽白〕

陽雜維於陽，其脈起於諸陽之會，……，其在頭也，與足少陽會於陽白在眉上。(《卷下·奇經八脈篇》)

2.2.2.10. 神應經¹⁵⁾

〔精明〕

在目內眥角，鍼寸半，雀目者可久留鍼，然後速出，禁灸。

〔攢竹〕

在兩眉頭小陷宛宛中，三分三度刺，目大明，宜鋒鍼出穴。

〔絲竹空〕

在眉後陷中，鍼三分，宜瀉不宜補，禁灸灸之使人目小無所見。

(以上《穴法圖》)

〔絲竹空〕

目戴上：絲竹空。

〔絲竹空〕

吐涎：絲竹空，百會。

〔絲竹空〕

風癩：神庭，百會，前頂，湧泉，絲竹空。

(以上見《諸風部》)

〔攢竹〕

身熱頭痛：攢竹，大陵，神門，合谷，魚際，中渚，液門，少澤，委中，太白。(見《傷寒部》)

〔攢竹〕

心邪癡狂：攢竹，尺澤，間使，陽谿。

癡癩：攢竹，天井，小海，神門，金門，商丘，行間，通谷，心俞_{百壯}，後谿。

〔絲竹空〕

發狂：少海，間使，神門，合谷，後谿，復溜，絲竹空。

(以上見《心邪癡狂部》)

〔攢竹，絲竹空〕

頭痛：百會，上星，中府，風池，攢竹，絲竹空，少海，陽谿，大陵，後谿，合谷，腕骨，中衝，崑崙，陽陵。

〔絲竹空〕

偏正頭風：百會，前頂，神庭，上星，絲竹空，風池，合谷，攢竹，頭維。

〔印堂，攢竹〕

醉後頭風：印堂，攢竹，三里。

〔攢竹〕

面腫：水溝，上星，攢竹，支溝，間使，中渚，液門，解谿，行間，厲兌，噫嘻，天牖，風池。

〔攢竹〕

頭風冷淚出：攢竹，合谷。

腦昏目赤：攢竹。

眼臉潤動：頭維，攢竹。

(以上見《頭面部》)

〔攢竹，絲竹空〕

目赤：目窓，大陵，合谷，液門，上星，攢竹，絲竹空。

〔攢竹〕

赤翳：攢竹，後谿，液門。

目赤膚翳：太淵，俠谿，攢竹，風池。

〔精明〕

目翳膜：合谷，臨泣，角孫，液門，後谿，中渚，精明。

冷淚：精明，臨泣，風池，腕骨。

迎風有淚：頭維，精明，臨泣，風池。

風生卒生翳膜兩目疼痛不可忍者：精明，手中指本節間尖上三壯。

(以上見《耳目部》)

〔絲竹空〕

眼睫毛倒：絲竹空。

〔攢竹，精明，絲竹空〕

目昏：頭維，攢竹，精明，目窓，百會，風府，風池，合谷，肝俞，脾俞，絲竹空。

〔絲竹空〕

目眩：臨泣，風府，風池，陽谷，中渚，液門，魚際，絲竹空。

〔瞳子膠〕

目生翳：肝俞，命門，瞳子膠_{在目外眥五分得氣乃瀉}，合谷，商陽。

(以上見《耳目部》)

[絲竹空]

口喎眼喎：頰車，水溝，列缺，太淵，合谷，二間，地倉，絲竹空。（見《鼻口部》）

[絲竹空]

風癩目戴上：百會，崑崙，絲竹空。

2.2.2.11. 鍼灸聚英發揮¹⁶⁾

[承泣]

目下七分，直瞳子，陷中，陽蹻脈任脈胃脈之會。銅人灸三壯，禁鍼。鍼之令人目烏色。明堂鍼四分半，不宜灸，灸後令人目下大如拳，息肉日加如桃，至三十日定，不見物。資生云，當不灸不鍼。東垣曰，魏邦彥夫人目翳，自下侵上者，自陽明來也。主目冷淚出，上觀瞳子癢，遠視眈眈，昏夜無見，目瞤動與項口相引，口眼喎斜，口不能言，面葉葉牽動，眼赤痛，耳鳴耳聾。

[四白]

目下一寸，直瞳子，令病人正視取之。素注鍼四分，甲乙銅人灸七壯，鍼三分，凡用鍼穩當方得下鍼，刺太深，令人目烏色。主頭痛目眩，目赤痛，僻淚不明，目癢，目膚翳，口眼喎僻不能言。

[睛明]

一名淚孔，目內眥。明堂云，內眥頭外一分宛宛中，手足太陽足陽明陰蹻陽蹻五脈之會。銅人鍼一寸半，留三呼，雀目者可久留鍼，然後速鍼，禁灸。明堂鍼一寸半。資生云，面部所鍼，淺者一分，深者四分，素注亦云一分，是銅人誤以一分爲一寸也。素注鍼一分，留六呼，灸三壯。主目遠視不明，惡風淚出，憎寒，頭痛目眩，內眥赤痛，眈眈無見，眥癢，浮膚白翳，目眥攀睛，弩肉侵睛，雀目，瞳子癢，小兒疳眼。

按東垣曰，刺太陽陽明出血則目愈明，蓋此經多血少氣，故目翳與赤痛從內眥起者，刺睛明攢竹以宣泄太陽之熱，然睛明刺一分半，攢竹刺一分三分爲適淺深之宜。今醫家刺攢竹臥直抵睛明，不補不瀉而又久留鍼，非古人意也。

[攢竹]

一名始光，一名員柱，一名光明，兩眉頭少陷

宛宛中。素注鍼三分，留六呼，灸三壯。銅人禁灸，鍼一分，留三呼，瀉三吸，徐徐出鍼，宜以細三稜鍼刺之，宣泄熱氣，三度刺，目大明。明堂宜細三稜鍼三分出血，灸一壯。主目眈眈視物不明，淚出目眩瞳子癢，目瞤，眼中赤痛及瞼瞤動不得臥，頰痛面痛，尸厥，癩邪神狂鬼魅，風眩，噎。

[絲竹空]

一名目膠。眉後陷中，手足少陽脈氣所發。素注鍼三分，留六呼，銅人禁灸，灸之不幸，使人目小及盲，鍼三分，留三呼，宜瀉不宜補。主目眩頭痛，目赤，視物眈眈不明，惡風寒，風癩目戴上不識人，眼睫倒毛，發狂吐涎沫，發即無視，偏正頭痛。

[瞳子膠]

一名太陽，一名前關，目外去皆五分，手太陽手足少陽三脈之會。素注灸三壯，鍼三分。主目癢，翳膜白，青盲無見，遠視眈眈，赤痛淚出，多眵眵，內眥癢，頭痛，喉閉。

[陽白]

眉上一寸，直瞳子，手足陽明少陽陽維五脈之會。素注鍼三分，銅人鍼二分，灸三壯。主瞳子癢痛，目上視，遠視眈眈，昏夜無見，目痛目眵，背膝寒慄，重衣不得溫。

[攢竹，絲竹空]

攢竹絲竹空主頭疼，偏正皆宜何此鍼，更去太都除瀉動，風池鍼刺三分深，曲池合谷先鍼瀉，永與除痼病不侵，依此下鍼無不應，管教隨手便安寧。（《雜病十一穴歌》）

[攢竹]

身熱頭痛攢竹穴，大陵新聞與少澤，合谷魚際中渚間，液門委中與太白。（《卷之八·傷寒》）

[攢竹]

心邪癩狂攢竹穴，陽谿間使與尺澤，癩狂肺俞至百壯，曲池一七理所當，小海少海間使穴，陽谿陽谷太陵方，京骨合谷餘魚際，腕骨神門餘衝陽，液門穴與行間穴，十六穴灸斯爲咸，戰汗攢竹神門中，天井小海金門同，商丘行間與通谷，心俞後谿鬼眼攻，通前總計十一穴。（《卷之八·心邪癩狂》）

〔絲竹空〕

目戴上治絲竹空，吐涎百會絲竹同。

惊癇神庭與百會，前項(應爲前頂)涌泉絲竹類，神闕一壯鳩尾三，七穴治之斯爲貴。(《卷之八·風》)

〔攢竹，絲竹空〕

頭痛百會上星中，風府攢竹小海攻，陽谿後谿合谷穴，腕骨中渚絲竹空，風池崑崙陽陵等，再兼一穴是中衝。

〔攢竹，絲竹空〕

偏正頭風百會穴，前頂神庭上星通，風池合谷頭維等，攢竹穴與絲竹空。

〔攢竹，印堂〕

醉後頭風治印堂，攢竹三里三穴當。(《卷之八·頭面》)

〔攢竹〕

面腫水溝與上星，攢竹支滿間使應，中渚液門解谿穴，行間厲兌噫嘻靈，再兼天牖風池等，十三穴內治之精。

假如頭風冷淚出，攢竹合谷治無失，腦昏目赤攢竹中，頭眩目窓，百會同，申脈至陰絡却穴，通前五穴治有功。

眼瞼動治頭維，再兼一穴攢竹翳。

(以上《卷之八·頭面》)

〔絲竹空，攢竹〕

凡人目赤目窓鍼，大陵合谷液門臨，上星絲竹空攢竹，十穴^{注17)}治之病絕根。

〔攢竹〕

目風赤爛陽谷燒，赤翳攢竹後谿高，再兼液門通三穴，斯病可待無根苗。

目赤膚翳治太淵，俠谿攢竹風池前。

〔睛明〕

目翳膜者治陷谷，臨泣角孫液門外，後谿中渚睛明穴。

白翳臨泣肝俞痊，睛痛內庭餘上星，假如冷淚治睛明，臨泣風池腕骨穴，四穴不失醫者精，迎風有淚治頭維，睛明臨泣與風池。

〔睛明〕

風生卒生翳膜引，兩目痛兮不可忍，睛明穴及

手中指，本節間尖三壯準。

〔絲竹空〕

眼眶毛倒絲竹空，青盲無見肝俞中，並及商陽通二穴，患左患右左右攻。

〔攢竹，睛明〕

眼背急痛三間醫，假如目昏治頭維，攢竹睛明。

〔絲竹空〕

目窓穴，百會風府與風池，合谷肝俞絲竹空，再兼一穴是督俞。

〔絲竹空〕

目眩臨泣風府中，風池陽谷中渚同，通前通後共八穴，液門魚際絲竹空。

〔瞳子膠〕

目生翳者治肝俞，命門瞳子窠穴宜，外眥五分得氣瀉，再兼合谷商陽穴。

(以上《卷之七·耳目》)

〔絲竹空〕

風癇目戴上百會，復兼崑崙絲竹空。(《卷之八·小兒》)

〔陽白〕

牙疼，主血熱胃中有熱風寒濕熱蟲蛀，陷谷，內庭，浮白，陽白，三間。

〔絲竹空，攢竹〕

肝氣實風熱痰熱血瘀熱血實氣壅，絲竹空，上星，百會，攢竹，宣洩，痛者，風池，合谷。

(以上《卷之五·治例》)

攢竹 腦昏目赤，瀉攢竹以便宜。(《卷之七·通玄指要賦》)

〔睛明〕

睛明治眼未效時，合谷光明安可缺。(《卷之七·席弘賦》)

〔攢竹〕

攢竹頭維治目疼頭痛。

〔睛明，太陽，魚尾〕

睛明太陽魚尾目證憑之。

〔太陽〕

婦人乳少少澤與太陽之可推。

〔太陽〕

左右太陽醫目疼善除血翳。

注17) 十穴似應爲七穴

[印堂]

印堂治其惊搐，神庭理乎頭風。

(以上<卷之七·玉龍部>)

[攢竹]

目中漠漠，即尋攢竹三間。

[精明]

觀其雀目汗氣^{注18)}，精明行間而細推。

[絲竹空]

耳門絲竹空^{注19)}牙疼於傾刻。

(以上<卷之七·百證賦>)

[承泣]

禁鍼血歌：禁鍼穴道要先明……顛顛承泣隨承靈。

[精明，攢竹，絲竹空]

禁灸穴歌：禁灸之穴四十五，……，精明攢竹迎香數，和窅顛窅絲竹空……。(《卷之七禁鍼禁灸穴歌》)

[精明，承泣，絲竹空，精明]

或問精明迎香承泣孫竹空禁灸何也？曰四穴近目，目畏火故禁灸也。以是推之則知精明可灸王注誤矣。

[精明，瞳子膠，絲竹空]

或問古人補瀉在井榮輪經合，然精明瞳子膠治疼，聽宮絲竹空聽會治耳聾，迎香治鼻，地倉治口喎，風池頭維治頭項不係，井榮輪經合何也？曰以其病左上取之上，其高者因而越之之意也。

(以上<附辯>)

2.2.2.12. 編註醫學入門¹⁷⁾

[承泣]

目下七分，上直瞳子，禁用鍼灸。

[四白]

目下一寸，鍼入三分，禁灸。主頭痛目眩，淚出，痛癢，生翳，瞶動不息。

[精明]

目內眥紅肉陷中，禁用鍼灸。

[攢竹]

當眉頭陷中，禁用鍼灸。

[絲竹空]

絲竹，眉尾骨後陷中，鍼三分，禁灸。

[瞳子膠]

去目外眥五分，禁用鍼灸。

[陽白]

眉上一寸直瞳子，鍼二分，灸三壯。主瞳子癢，昏蒙，目系急上插，頭目痛，目眇，背寒。(以上<內集卷一經絡經穴起止>)

[承泣]

禁鍼穴：顛顛角孫承泣穴，……，橫骨氣街鍼莫行。(《內集卷一鍼灸禁鍼穴》)

絲竹空，攢竹，精明穴

禁灸穴：瘰門風府天柱擊，承光臨泣頭維平，絲竹攢竹精明穴，……，灸而勿鍼，鍼勿灸，鍼經爲此常叮嚀，庸醫鍼灸一齊用，從施患者炮烙形。(《內集卷一鍼灸禁灸穴》)

2.2.2.13. 醫學綱目¹⁸⁾

[攢竹二穴]

在兩眉頭少陷中，足太陽脈氣所發，不宜灸，鍼入一分，宜以細三稜鍼刺之，宣洩熱氣。

[精明二穴]

在目內眥頭外一分，手足太陽少陽陽明陽蹻陰蹻五脈之會，鍼入一分，有三呼，不可灸。

[陽白二穴]

在眉上一寸，直目瞳子，手足陽明少陽陽維五脈之會，可灸三壯，鍼入三分。

[承泣二穴]

在目下七分直目瞳子陷中，蹻脈任脈足陽明之會，可灸三壯，不可鍼。

[四白二穴]

在目下二寸，足陽明脈氣所發，可灸七壯，鍼入三分。

[絲竹空二穴]

在眉後陷中，足少陽脈氣所發，不可灸，鍼入三分，留三呼。

[瞳子膠二穴]

注18) 汗氣：《鍼灸大成》은 肝氣라 했음. 存疑.

注19) 柱：《鍼灸大成》은 住라 했는데 같은 뜻임.

在目外去眥五分，手太陽手足少陽之會，可灸三壯，鍼入三分，或云禁灸。

(以上《卷之八·穴法下》)

[承泣]

[《子和》] 一長史，病口目喎斜，予療之。目之斜，灸以承泣，口之喎，灸以地倉，俱效。苟不效者，當灸人迎。(《卷之七·中風·口眼喎斜》)

[攢竹，絲竹空]

[《子和》] 余嘗病目赤，或腫或翳，作之無時。偶至新息帥府，百余日羞明隱澹，腫痛不已。忽眼科姜仲安云：宜刺上星至百會，速以金針鍼刺四五十刺。攢竹穴，絲竹空穴上兼眉際二十刺，及鼻兩孔內，以草莖彈子出血如前，約二升許，來日愈大半，三日平復如初。

[睛明，瞳子膠，太陽]

[《玉》] 眼紅腫，羞明怕日，並昏：睛明。斜飛向鼻，不可直刺，忌灸。瞳子竅。鍼入一分，沿皮內透魚腰，太陽皆脈上，三稜鍼出血。

[攢竹]

[《集》] 羞明怕日：攢竹，合谷灸，小骨空灸如前，三間。

[睛明，太陽]

[《集》] 諸障：睛明，四白在珠下一分，太陽，脈會，商陽，厲兌，光明各出血，合谷，三里，命門，肝俞，光明各灸之。

[睛明]

[《甲》] 內眥赤腫，目眈眈無所見，眥癢痛，淫膚白翳，睛明主之。

[四白]

[《甲》] 目痛口僻，淚目不明，四白主之。

[睛明，太陽]

[《集》] 弩肉攀睛：睛明，風池，太陽出血，期門。

[瞳子膠]

[《玉》] 眼久病昏花：肝俞一分，沿皮向外一寸半，補三呼，三里一寸，泄十吸，瞳子竅。

[攢竹]

[《子和》] 戴人女童至西華，具急暴盲不見物。戴人曰：此相火也，太陽陽明氣血俱盛，

乃刺鼻中攢竹穴與項前五穴^(注20)，大出血，目立明。

[承泣]

[《甲》] 瞳子癢，遠視昏眈眈，夜無見，目躑動，與項口相參引，喎僻口不能言，刺承泣。

(以上《卷之十三·目疾門》)

[絲竹空]

[《摘》] 偏正頭風：絲竹空沿皮向外透率谷，風池橫鍼入寸半，透風府，合谷半寸已上穴，未愈，再取，解谿，三里，中脘中腕一穴，灸五十壯。

[太陽]

[《集》] 醉頭風：百會一分，灸七壯，上星二分，灸七壯，三稜鍼出血亦得，合谷不愈，再取，神庭灸七壯，太陽在兩額角後髮脈上，三稜鍼出血亦得。

[內攢竹，印堂，攢竹，魚腰]

醉頭風：內攢竹，一穴《通玄》同，印堂一分，灸五壯，攢竹一分，沿皮透魚腰，三里，膻中灸，風門沿皮向外一寸。

[印堂，攢竹]

[《玉》] 頭痛嘔吐：神庭一分，印堂在兩眉中，沿皮透左攢竹，補三吸，轉歸原元穴，退鍼沿皮透右攢竹，補三吸。

[攢竹，陽白]

[《甲》] 頭目瞳子痛，不可以視，俠項強急，不可以顧，陽白主之。頭風痛，鼻齇衄，眉頭痛，善嚏，目如欲脫，汗出寒熱，面赤頰中痛，項強不可左右顧，目系急，瘰癧，攢竹主之。

[攢竹，魚腰]

[《玉》] 眉間痛：攢竹瀉出血，沿皮透魚腹^(注21)，頭維一分，沿皮斜向下透懸顛，選而用之，不必盡取。

[攢竹]

[《玉》] 眉稜骨痛：攢竹，合谷，神庭。

[印堂，攢竹]

[《撮》] 頭重如石：印堂一分，沿皮透攢竹，選左後右，彈鍼出血。

(以上《卷之十五·頭風痛》)

[太陽穴]

注20) 項前五穴，《東醫寶鑑》作頂，似應為頂。
注21) 魚腹，似為魚腰穴。

治頭風餅子：五倍子，全蠍，土狗七個，右爲末，醋糊作如錢大餅子，發時再用醋潤透，貼太陽穴上，灸熱貼之驗甚，仍用帕子縛之，啜濃茶，睡覺即愈。（《卷之十五·頭風痛》）

〔絲竹空，承泣〕

灸禁忌法：絲竹空灸之，不幸使人目小及盲，承泣禁不可灸。

〔目眶上陷骨〕^{注22)}

鍼禁忌法：刺目眶上陷骨中脈爲漏爲盲。

2.2.2.14. 鍼灸大成校釋¹⁹⁾

〔承泣〕

目下七分，直瞳子陷中，足陽明，陽蹻脈，任脈之會。《銅人》灸三壯，禁鍼，鍼之令人目烏色。《明堂》鍼四分半，不宜灸，灸後令人目下大如拳，息肉目加如桃，至三十日定不見物。《資生》云：當不灸不鍼。

東垣曰：魏邦夫人目翳綠色，從下侵下者，自陽明來也。主目冷淚出，下顫，瞳子癢，遠視眩暈，昏夜無見，目瞤動與項口相引，口眼喎斜，口不能言，面葉葉牽動，眼赤痛，耳鳴耳聾。

〔四白〕

目下一寸，直瞳子，令病人正視取之。《素注》鍼四分。《甲乙》，《銅人》鍼三分，灸七壯。凡用鍼穩當，方可下鍼，刺太深，令人目烏色。

主頭痛，目眩，目赤痛，僻淚不明，目癢目膚翳，口眼喎嚙不能言。

〔睛明（一名淚孔）〕

目內眥。《明堂》云：內眥頭外一分，宛宛中，手足太陽，足陽明，陽蹻，陰蹻五脈之會。鍼一分半，留三呼，雀目者，可久留鍼，然後速出鍼。禁灸。主目遠視不明，惡風淚出，憎寒頭痛，目眩內眥赤痛，眩暈無見，眥癢，淫膚白翳，大眥攀睛努肉，侵睛雀目，瞳子生瘻，小兒疳眼，大小氣眼冷淚。

安東垣曰：刺太陽，陽明出血，則目愈明。蓋此經多穴小氣，故目翳與赤痛從內眥起者，刺睛

明，攢竹，以宣泄太陽之熱。然睛明刺一分半，攢竹刺一分三分，爲適淺深之宜。今醫家刺攢竹，臥鍼職抵睛明，不補不瀉，而又久留鍼，非古人意也。

〔攢竹（一名始光，一名員柱，一名光明）〕

兩眉頭陷中。《素注》鍼二分，留六呼，灸三壯。《銅人》禁灸，鍼一分，留三呼，瀉三吸，徐徐出鍼。宜以細三稜鍼刺之，宣泄熱氣，三度刺，目大明。《明堂》宜以細三稜鍼三分，出血，灸一壯。

主目眩暈，視物不明，淚出目眩，瞳子癢，目瞤，眼中赤痛及臉瞤動不得臥，脇痛，面痛，屍厥癲邪，神光鬼魅，目眩，嚏。

〔絲竹空（一名目膠）〕

眉後陷中，手足少陽脈氣所發。《素注》鍼三分，留六呼。《銅人》禁灸，灸之不幸，使人目小及盲。鍼三分留六呼，宜瀉不宜補。

主目眩頭痛，視物眩暈不明，惡風寒，風痲，目戴上不識人，眼睫毛倒，發狂吐涎沫，發即無時，偏正頭痛。

〔瞳子膠（一名太陽，一名前關）〕

目外去眥五分，手太陽，手足少陽三脈之會。《素注》灸三壯，鍼三分。

主目癢，翳膜白，青盲無見，遠視眩暈，赤痛淚出多眵瞤，內眥癢，頭痛，喉閉。

〔陽白〕

眉上一寸，直瞳子，手足陽明，少陽，陽維五脈之會。《素注》鍼三分。《銅人》鍼二分，灸三壯。

主瞳子癢痛，目上視，遠視眩暈，昏夜無見，目痛目眇，背膝寒慄，重衣不得溫。

（以上《卷六·老正穴法》）

〔魚腰〕

魚腰二穴，在眉中間是穴。治眼生垂廉翳膜，鍼入一分，沿皮向兩旁是也。

〔太陽〕

太陽二穴，在眉後陷中，太陽緊脈上是穴。治眼紅腫及頭，用三稜鍼出血。其出血之法，用帛一條，緊纏其項頸，緊脈即現，刺出血立愈。又法：以手緊紐氣領，令緊脈見，却於緊脈上刺

注22) 目眶上陷骨，似爲魚腰穴。

出血，極效。

〔印堂〕

印堂一穴，在兩眉中陷中是穴，鍼一分，灸五壯，治小兒驚風。

（以上《卷七》）

〔睛明〕

在目內眦頭外一分許，鍼一分半，雀目者，可久留鍼，然後速出，禁灸。

〔攢竹〕

左兩眉頭小陷宛宛中，鍼三分，三度刺，目大明，宜用鋒鍼出血，禁灸。

〔絲竹空〕

在眉後陷中，鍼三分，宜瀉不宜補，禁灸，灸之，令人目小無見。

（以上《卷八·穴法·神應經》）

〔攢竹〕

刺瘡者，必先問其病之所先發者，先刺之。先頭痛及重者，先刺頭上及兩額，兩眉間出血。楊繼洲注：頭謂上星，百會，額謂懸顛，眉間謂攢竹等穴是也。（《卷一·鍼灸直指·刺瘡論》）

〔攢竹〕

目中漠漠，即尋攢竹，三間。

〔睛明〕

觀其雀目肝氣，睛明，行間而細推。

〔絲竹空〕

耳門，絲竹空，住牙疼於頃刻。

（以上《卷二·百症賦》）

睛明 睛明治眼未效時，合谷，光明安可缺。（《卷二·席弘賦》）

〔攢竹〕

攢竹，頭維，治目疼頭痛。

〔睛明、太陽、魚尾〕

睛明，太陽，魚尾，目症凭茲。

〔印堂〕

印堂治其驚搐，神庭理乎頭風。

（以上《卷二·玉龍賦》）

〔攢竹〕

腦昏目赤，瀉攢竹以便宜。（《卷二·通玄指要賦》）

〔睛明〕

睛明治弩肉攀。（《卷二·靈光賦》）

〔睛明、攢竹、絲竹空〕

睛明目眦內角畔，攢竹兩眉頭陷中，絲竹眉後陷中按。（《卷三·百穴法歌》 出自《神應經》）

〔印堂〕

孩子慢驚何可治，印堂刺入艾還加。

楊氏注：印堂入一分，沿皮透左右攢竹，大哭效，不哭難。急驚瀉，慢驚補。

〔絲竹空〕

偏正頭風痛難醫，絲竹金鍼亦可施，沿皮向後透率谷，一鍼兩穴世間稀。

〔攢竹〕

眉間疼痛苦難當，攢竹沿皮刺不妨，若是眼昏皆可治，更鍼頭維即安康。

楊氏注：攢竹宜瀉，頭維入一分，沿皮透兩額角，疼瀉，眩暈補。

〔睛明、魚尾、太陽〕

兩眼紅腫痛難熬，怕日羞明心自焦，只刺睛明，魚尾穴，太陽出血自然消。

楊氏注：睛明鍼五分，後略向鼻中，魚尾透魚腰，即瞳子膠，俱灸。如虛腫不宜去血。

〔太陽〕

眼痛忽然血貫睛，羞明更澁最難睜，須得太陽鍼血出，不用金刀疾自平。

（以上《卷三·玉龍歌》）

〔絲竹空、攢竹〕

目內紅痛苦皺眉，絲竹，攢竹亦堪醫。（《卷三·勝玉歌》）

〔攢竹、絲竹空〕

攢竹，絲空主頭疼，偏正皆宜向此鍼，更去大都除瀉動，風池鍼刺三分深。

（以上《卷三·雜病十一穴歌》，出於《聚英》）

〔承泣〕

禁鍼穴歌：顛息，角孫，承泣穴，……，橫骨，氣衝鍼莫行。（《卷四·禁鍼穴歌》）

〔絲竹空、攢竹、睛明〕

瘧門，風府，天樞擊，承光，臨泣，頭維平，絲竹，攢竹，睛明穴，素膠，和膠，迎香程，……，灸而勿鍼，鍼勿灸，鍼經爲此常叮嚀，庸醫

鍼灸一齊用，徒施患者炮烙刑。(《卷四·禁灸穴歌》)

[絲竹空]

目戴上：絲竹空。

吐涎：絲竹空，百會。

風癩：絲竹。(《卷八·諸風門》)

[攢竹]

身熱頭痛：攢竹，大陵，神門，合谷，魚際，中渚，液門，少澤，委中，太白。(《卷八·傷寒門》)

[攢竹]

心邪癲狂：攢竹，尺澤，間使，陽谿。

癲癩：攢竹，天井，小海，神門，金門，商丘，行間，通谷，心俞(百壯)，後谿，鬼眼穴。

[絲竹空]

發狂：少海，間使，神門，陷谷，後谿，復溜，絲竹空。

(以上《卷八·心邪癲狂門》)

[攢竹，絲竹空]

頭痛：百會，上星，風府，風池，攢竹，絲竹空，小海，陽谿，大陵，後谿，合谷，腕骨，中衝，中渚，崑崙，陽陵。

偏正頭風：脈會，前頂，神庭，上星，絲竹空，風池，合谷，攢竹，頭維。

[印堂，攢竹]

醉後頭風：印堂，攢竹，三里。

[攢竹]

面腫：水溝，上星，攢竹，支溝，間使，中渚，液門，解谿，行間，厲兌，諶諶，天牖，風池。

[攢竹]

頭風冷淚出：攢竹，合谷。

[攢竹]

腦昏目赤：攢竹。

[攢竹]

眼瞼闞動：頭維，攢竹。

(以上《卷八·頭面門》)

[攢竹，絲竹空]

目赤：目窓，大陵，合谷，液門，上星，攢竹，絲竹空。

[攢竹]

赤翳：攢竹，後谿，液門。

[攢竹]

目赤膚翳：太淵，俠谿，攢竹，風池。

[睛明]

目翳膜：合谷，臨泣，角孫，液門，後谿，中渚，睛明。

[睛明]

冷淚：睛明，臨泣，風池，腕骨。

[睛明]

迎風有淚：頭維，睛明，臨泣，風池。

[睛明]

風火卒生翳膜，兩目疼痛不可忍者：睛明，手中指本節間尖上三壯。

[絲竹空]

眼睫毛倒：絲竹空。

[攢竹，睛明，絲竹空]

目昏：頭維，攢竹，睛明，目窓，脈會，風府，風池，合谷，肝俞，腎俞，絲竹空。

[絲竹空]

目眩：臨泣，風府，風池，陽谷，中渚，液門，魚際，絲竹空。

[瞳子膠]

目生翳：肝俞，命門，瞳子膠(在目外眦五分得氣內瀉)，合谷，商陽。

(以上《卷八·耳目門》)

[絲竹空]

口喎眼喎：頰車，水溝，列缺，太淵，合谷，二間，地倉，絲竹空。(《卷八·鼻口門》)

[絲竹空]

風癩，目戴上：百會，崑崙，絲竹空。(《卷八·小兒門》)

[印堂]

中風風癩，癱瘓等症：印堂(鍼灸)。(《卷八·續增治法·中風癱瘓鍼灸秘語》，出自《乾坤生意》)

[攢竹]

汗出寒熱：五處，攢竹，上脘。(《卷八·續增治法·傷寒》 出自《聚英》)

[攢竹，絲竹空]

眼目：主肝氣實，風熱，痰熱，血瘀熱，血實氣壅。鍼上星，百會，神庭，前頂，攢竹，絲竹空。（《卷八續增治法雜病》）

〔攢竹，印堂〕

第十三，醉頭風：攢竹，印堂，三里。

〔睛明，四白〕

第十四，目生翳膜：睛明，合谷，四白。

〔攢竹，睛明上(淚孔上)〕

第十五，迎風冷淚：攢竹，大骨空，小骨空，……，復刺後穴，小骨空(治男婦醉後當風)，三陰交(治婦人交感症)，淚孔上(米大艾七壯效)，中指半指尖(米大艾三壯)。

〔瞳子膠，睛明〕

第十六，目生內障：瞳子膠，陷谷，臨泣，睛明。

〔太陽，睛明，攢竹，內眥尖〕

第十七，目患外障：小骨空，太陽，睛明，合谷，……，刺前不效，復刺後穴二三次方愈。臨泣，攢竹，三里，內眥尖(灸五壯，即眼頭尖上)。

〔睛明，四白〕

第十八，風浴眼弘紅澁爛：睛明，四白，合谷，臨泣，二間。

太陽，睛明，攢竹，絲竹空

第十九，眼赤暴痛：合谷，三里，太陽，睛明，……，復刺後穴：太陽，攢竹，絲竹空。

〔睛明，四白〕

第二十，眼紅腫痛：睛明，合谷，四白，臨泣。

〔睛明，太陽〕

第二十一，弩肉侵睛：風池，睛明，合谷，太陽，……，復刺後穴：風池，期門，行間，太陽。

〔攢竹，睛明〕

第二十二，怕日羞明：小骨空，合谷，攢竹，三間，……，復鍼後穴：睛明，行間，光明。

〔印堂〕

第二十九，鼻衄不止：合谷，上星，百勞，風府。

問曰：此症緣何而得？出血不止。

答曰：血氣上壅，陰陽不能升降，血不宿肝，肝主藏血，血熱妄行，故血氣不順也。鍼前不效，復刺後穴：迎香，人中，印堂，京骨。

〔瞳子膠〕

第二十九，口眼喎斜：頰車，合谷，地倉，人中。

問曰：此症從何而得？

答曰：醉後臥睡當風，賊風竄入經絡，痰飲流注，或因怒氣傷肝，房事不節，故得此症。復刺後穴：承漿，百會，地倉，瞳子膠。

〔攢竹，太陽〕

第一百一十，傷寒頭痛：合谷，攢竹，太陽(眉後緊脈上)。

(以上《卷九治症總要》)

〔瞳子膠〕

眼閉^{註23)}，瞳子膠瀉。（《卷十保嬰神術觀形察色法認筋法歌》）

〔攢竹〕

《寶鑑》曰：急慢驚風，灸前頂，若不愈，灸攢竹，人中各三壯。

或謂急驚屬肝，慢驚屬脾，《寶鑑》不分，灸前頂，攢竹二穴，俱太陽，督脈，未詳其義。（《卷十保嬰神術小兒》）

〔睛明，承泣，絲竹空〕

附辯：或問：睛明，迎香，承泣，絲竹空，皆禁灸何也？曰：四穴近目，目畏火，故禁灸也。以是推之，則知睛明之可灸，王注誤矣。

2.2.2.15. 類經圖翼²⁰⁾

〔承泣〕

禁鍼穴歌共^{三十一穴}：禁鍼穴道要先明，……，顛顛承泣隨承靈，……，二十三穴不可鍼，……。（《四卷經絡一》）

〔睛明，攢竹，絲竹空〕

禁灸穴歌^{四十九穴}：禁灸之穴四十七，……，睛明攢竹下迎香，……，禾膠顛膠絲竹空，……。（《四卷經絡一》）

〔承泣〕

一名面膠，一名懸穴，在目下七分，上直瞳子

註23) 指小兒驚風時出現的眼閉之症。

陷中。陽蹻脈任脈足陽明三脈之會，刺三分，禁灸。一曰禁不宜鍼。

主治冷淚出瞳子癢，遠視眩暈，昏夜無見，口眼喎斜。

〔四白〕

在目下一寸，直瞳子，向鳩骨顛空正視取之。刺三分，禁灸。甲乙經曰，灸七壯，一曰下鍼宜慎，若深即令人目烏色。

主治頭痛目眩，目赤生翳，瞬動流淚眼弦癢，口眼喎僻不能言。（《六卷·經絡四》）

〔睛明〕

一名淚孔。在目內眥外一分宛宛中。氣府論注曰，手足太陽足陽明陰陽蹻五脈之會。刺一分半，留六呼，灸三壯。甲乙經曰，刺六分，一曰禁灸。

主治目痛視不明，見風淚出，努肉攀睛，白翳皆癢疔眼，頭痛目眩。凡治雀目者，可久留鍼，然後速出之。

席弘賦云，治眼若未效，并合谷光明不可缺。

百證賦云，兼行間，可治雀目汗氣。

靈光賦云，治努肉。（《七卷·經絡五》）

〔絲竹空〕

一名目膠。在目後陷中。甲乙經曰，足少陽脈氣所發。刺三分，留三呼，禁灸，灸之不幸，令人目小及盲。

主治頭痛目赤目眩，視物眩暈，拳毛倒睫，風癩戴眼發狂吐涎沫，偏正頭風。

神農經云，治頭風宜出血。

百證賦云，兼耳門能治牙疼于頃刻。

通玄賦云，治偏頭痛難忍。

一傳主眼赤痛，鍼一分出血。

〔瞳子膠〕

一名太陽，一名前關。在目外去眥五分，手太陽手足少陽三脈之會。刺三分，灸三壯。

主治頭痛目癢，外眥赤痛，翳膜青盲，遠視眩暈，淚出多眵。

一云兼少澤能治婦人浮腫。

（以上《七卷·經絡五》）

〔陽白〕

在眉上一寸直瞳子。甲乙經曰，足少陽陽維之

會。氣府論王氏注曰，足陽明陰維二脈之會。刺二分，灸三壯。

主治頭痛目昏多眵，背寒慄，重衣不得溫。（《八卷·經絡穴》）

〔印堂〕

在兩眉中間。

神農鍼經云，治小兒急慢驚風，可灸三壯，艾炷如小麥。玉龍賦云，善治惊搐。

〔鼻交頰中〕

千金翼方云，主癩風角弓反張，羊鳴，大風青風面風與蟲行，卒風多睡健忘，心中憤憤，口禁卒倒不識人，黃疸急黃，此一穴皆主之。鍼入六分，得氣即瀉，留三呼五吸^{註24}不補，亦宜灸，然不及鍼。慎酒麵生冷醋滑猪魚蒜蕎麥漿水。

〔顛顛〕

千金翼方云，顛顛在眉眼尾中間，上下有來去絡脈，是鍼灸之所。主治痘氣溫病。

〔魚尾〕

在目眥外頭。

玉龍賦云，兼睛明太陽，治目證。

（以上《九卷·經絡八·奇俞類集》）

〔印堂〕

鼻淵：上星，曲差，印堂，風門，合谷。（《十一卷·鍼灸要覽·諸症灸法要穴》）

〔攢竹〕

一名始光，一名員柱，一名夜光，一名光明，在眉頭陷者中，刺一分，留六呼，不宜灸。甲乙經云，灸三壯。明堂用細三稜鍼刺之，宣泄熱氣眼目大明，宜刺三分出血。

主治目視眩暈，淚出目眩，瞳子癢，眼中赤痛及腮臉瞬動不臥。

玉龍賦云，兼頭維，治目疾頭痛。

百證賦云，兼三間，可治目中漠漠。

通玄賦云，腦昏目赤，瀉此。（《七卷·經絡五·足太陽經穴》）

2.2.2.16. 張氏醫通²¹⁾

〔攢竹〕

注24) “五吸”二字前，當有“瀉”字。據千金翼方，著者。

目忽盲不見物，此相火也，太陽陽明氣血俱盛，乃刺其鼻中攢竹穴與頂前五血，大出血立明，他經出血，其病轉劇，故曰，刺太陽陽明則目愈明，刺少陽陽明則目愈昏，近世有以光明莫於上下胞打出血絲，往往獲效，即三稜鍼刺血之法，惟可施之於有餘暴發耳。（《卷八·七竅門上·目疾統論》）

2.2.2.17. 醫宗金鑑²²⁾

〔承泣，四白〕

承泣目下七分尋，再下三分名四白。

〔睛明，攢竹〕

目內眥眦始睛明，眉豆陷中攢竹取。

〔絲竹空〕

欲覺絲竹空何在，眉後陷中仔細觀。

〔瞳子膠〕

外眥五分瞳子膠。

〔陽白〕

陽白眉上一寸許。

（以上《卷八十一～卷八十三》）

〔攢竹〕

頭維主刺頭風痛，目痛如脫泪不明，禁灸隨皮三分刺，兼刺攢竹更有功。（《卷八十五·頭部主病鍼灸要穴歌》）

2.2.2.18. 經穴彙解²³⁾

〔攢竹_{甲乙}〕

一名圓在，一名始光，一名夜光，一名明光_{甲乙}，一名員柱_{醫統}，眉頭，又云眉本_{素問}，陷者中_{甲乙}，禁刺灸_{入門}。

按員在，資生作員柱，玉鑑，大成作員柱，在疑寫誤，明光，資生，大成作光明，始光，聚英，醫統，吳文炳作始元。

〔睛明_{甲乙}〕

一名泪孔_{甲乙}，外臺作淚孔，泪淚同字，一名淚空_{聚英}，目內眥_{素問}，內眥外_{甲乙}，禁灸_{資生}，禁刺_{入門}，按千金作精明，精睛音通，類經曰，內眥外臺分宛宛中，入門曰，紅肉陷中，並非也，甲乙，次注皆曰，灸三壯，醫統曰，或問睛明，迎香，承泣，絲竹空皆禁灸何也，曰，四白近目，

目畏火，故勿灸也，以是推之，則知睛明可灸，王注誤矣，而醫統穴下，注灸三壯，可謂矛盾。

〔陽白_{甲乙}〕

眉上一寸直瞳子_{甲乙}。

按入門，陽

作楊字誤。

資生，聖濟

作直目瞳子。

〔承泣_{甲乙}〕

一名颺穴，一名面窞_{甲乙}，目下柒分，直目瞳子_{甲乙}，陷中_{白生}，正視取之_{金鑑}，禁灸_{甲乙}，灸三壯_{資生}，禁刺_{資生}。

按颺，外臺作谿，千金翼曰，目下柒分匡骨下，外臺甄權曰，眼下捌分，共非是，金鑑曰，目下胞。

〔四白_{甲乙}〕

目下壹寸，面鳩骨顴空_{甲乙}，直瞳子_{發揮}，正視取之_{類經}，禁灸_{類經}，入門。

〔絲竹空_{甲乙}〕

一名巨窞_{甲乙}，一名目膠_{外臺}，眉後_{素問}陷者中_{甲乙}，眉尾骨後_{入門}動脈_{增注}，禁灸_{甲乙}。

〔瞳子膠_{甲乙}〕

一名太陽，一名前關_{千金注}，一名候曲_{外臺}，目外眥伍分_{甲乙}，動脈_{增注}，禁鍼灸_{入門}。

按資生曰，前關各二穴，素問亦同，明堂上下經有上關而無下關，惟上經有前關穴，又不餘下關穴同，在下關之下，恐別自是前關穴，一名太陽穴，理風赤眼頭痛目眩溢等疾，所不可廢，故附入於下關之後，乃今據千金方，太陽即瞳子膠一名也，資生為別穴者誤。

（以上《卷之一·頭面部第一》）

〔承泣〕

陽窞，任脈，足陽明之會。

〔四白〕

所發。

〔睛明〕

手足太陽，足陽明之會，外臺作手足太陽明，次注加陰躄陽躄五脈之會。

〔攢竹〕

足太陽脈氣所發。

〔瞳子膠〕

手太陽，手足少陽之會。

〔絲竹空〕

足少陽脈氣所發。

〔陽白〕

同上。次注曰，足陽明，陰維二脈之會，新校正曰，按甲乙經，陽白，足少陽陽維之會，今王氏云，足陽明陰維之會，詳此在足陽明脈氣所發中，則足陽明近是，然陽明經不到此，又不與陰維會疑王注非。發揮曰，手足太陽少陽足陽明五脈之會。聚英曰，手足陽明少陽陽維五脈之會。

(以上《卷之六》)

〔顴顴〕

眉眼尾中間，上下有來去絡脈。千金

按與腦穴異。千金曰，鍼灸之，治四時寒暑所苦疽氣溫病等。

〔當容〕

肝勞邪氣眼赤，灸當容百壯，兩邊各爾。穴在眼小眥近後，當耳前三陽三陰之會處，以兩手按之，有上下橫脈則是。與耳門相對是也。千金

〔曲眉〕

兩眉間。千金

按面風游風云云，灸三百壯。

〔魚腰〕

眉中間。大成

〔印堂〕

兩眉中間大全陷中大成。

按此穴曲眉魚腰穴同處，蓋異名也。鍼之治目疼，灸之治急慢驚風。大全曰，兩眉痛不已。

〔太陽〕

眉後陷中，大陽紫脈上。大成

按絲竹空也。沈寘錄曰，眉際之末者，大陽穴，宜與瞳子膠合考。奇效良方曰，戴陽二穴，在眉後陷中，大陽紫脈上是穴。治眼紅腫及頭痛，宜用三稜鍼出血。出血之法，用帛一條，紫纏其項，緊脈即現，刺見血，立愈。

〔魚尾〕

目眥外頭。類經

按銀海精微曰，小眥橫紋盡處，大全曰，眉外頭。小字是外之誤，眉之是目之誤。此穴似瞳子

膠，疑是其穴。千金曰，眼戴精上插，灸目兩眥後，二十壯，蓋指魚尾。

〔光明〕

對瞳人上，眉中，始光明穴。銀海精微

〔鼻交頰中〕

鼻交頰中一穴，鍼入六分，得氣即瀉，留三呼，瀉五呼，不補，亦宜灸，然不如鍼。天翼

按經脈篇曰，足陽明之脈，起於鼻之交頰中，是其名稱所出。

〔攢竹〕

面八邪穴，外科全書云面八邪，一承光，二攢竹，三禾窵，四人迎。

二攢竹兩穴在眉心。

(以上《卷之七·奇穴部》)

2.2.2.19. 睛穴學²⁴⁾

〔承泣〕

別名) 睛穴，面窵(《甲乙》)

位置) 在目下七分，直目瞳子。(《甲乙》)

取法) 正坐，兩目正視，瞳孔之下0.7寸，當眼球與眶下緣之間取穴。

主治) 眼瞼瞤動，目赤腫痛，迎風流淚，夜盲，口眼歪斜。

刺灸法) 緊靠眶下緣緩慢直刺0.3~0.7寸，不宜提搖，以防刺破血管引起血腫；禁灸。

〔四白〕

位置) 在目下一寸。(《甲乙》)

取法) 正坐，在承泣直下3分，當眶下孔凹陷處取穴。

主治) 目赤痛，癢，目翳，眼瞼瞤動，迎風流淚，頭面疼痛，口眼歪斜，眩暈。

刺灸法) 直刺0.2~0.3寸；禁灸。

〔睛明〕

別名) 淚孔(《甲乙》)，淚空(《聚英》)

位置) 在目內眥外。(《甲乙》)

取法) 於目內眥的外上方陷中取穴。

主治) 目赤腫痛，憎寒頭痛，目眩，迎風流淚，內眥癢痛，努肉攀睛，目翳，目視不明，近視夜盲，色盲。

刺灸法) 囑病人閉目，左手將眼球推向外側

固定，鍼沿眼眶邊緣緩緩刺入0.3~0.5寸，不宜作大幅度提搦，捻轉；禁灸。

〔攢竹〕

別名) 員在，始光，夜光，明光(《甲乙》)，員柱(《銅人》)。

位置) 在眉頭陷者中。(《甲乙》)

取法) 在眉毛內側端，眶上切迹處取穴。

主治) 頭痛，眉稜骨痛，目眩，目視不明，目赤腫痛，迎風流淚，近視，眼瞼瞤動，面癱。

刺灸法) 治療眼病，可向下斜刺0.3~0.5寸；治療頭痛，面癱，可平刺透魚腰；禁灸。

〔絲竹空〕

別名) 巨窞(《甲乙》)；目窞(《外臺》)。

位置) 在眉後陷者中。(《甲乙》)

取法) 在眉毛外端凹陷處取穴。

主治) 頭痛，目眩，目赤痛，眼瞼瞤動，齒痛，癩痢。

刺灸法) 平刺0.5~1寸。

〔瞳子髎〕

別名) 太陽，前關。(《千金方》)

位置) 在目外眦五分。(《甲乙》)

取法) 在目外眦外側，眶骨外側緣凹陷中取穴。

主治) 頭痛，目赤，目痛，怕光羞明，迎風流淚，遠視不明，內障，目翳。

刺灸法) 向後平刺或斜刺0.3~0.5寸；或用三稜鍼點刺出血。

〔陽白〕

位置) 在眉上一寸，直瞳子。(《甲乙》)

取法) 在前額，於眉毛中點上1寸取穴。

主治) 頭痛，目眩，目痛，外眦疼痛，眼瞼瞤動，雀目。

刺灸法) 平刺0.5~0.8寸；可灸。

〔印堂〕

位置) 在兩眉間宛宛中。(《玉龍經》)

取法) 正坐仰靠或仰臥，於兩眉頭連線的中點，對準鼻尖處取穴。

主治) 頭痛，頭暈，鼻淵，鼻衄，目赤腫痛，重舌，嘔吐，產婦血暈，子女，急慢驚風，不寐，顏面疔瘡以及三叉神經痛。

刺灸法) 提捏局部皮膚，向下平刺0.3~0.5寸；或用三稜鍼點刺出血；可灸。

〔太陽〕

別名) 前關(《聖惠》)

位置) 在眼小眦後一寸。(《聖濟》)

取法) 正坐或側伏，於眉梢與目外眦連線中點外開一寸的凹陷中取穴。

主治) 偏正頭痛，目赤腫痛，目眩，目澁，口眼喎斜，牙痛，三叉神經痛。

刺灸法) 直刺或斜刺0.3~0.5寸；或用三稜鍼點刺出血；禁灸。

〔魚腰〕

位置) 在眉中間。(《醫經小學》)

取法) 正坐或仰臥，兩目平視，於眉毛中間與瞳孔直對處取穴。

主治) 目赤腫痛，目翳，眼瞼瞤動，眼瞼下垂，口眼喎斜，眶上神經痛。

刺灸法) 平刺0.3~0.5寸；禁灸。

2.2.2.20. 鍼灸經外奇穴圖譜²⁵⁾

〔印堂〕

位置) 位於額部，眉間正中點是穴

取法) 兩眉中間陷中，對準鼻尖

主治) 瘡，小兒急慢驚風，漏經，兩眉角痛，驚搐，頭重，傷寒衄血，重舌，面部疔，久年頭痛，眩暈，嘔吐，眼病，鼻淵，鼻塞，產後血暈，子癇，三叉神經痛

刺灸法) 鍼斜刺向下方與額平面成三十度角，深度可達一分，得氣時有酸脹感向四周放射，灸三壯。

〔曲眉〕

定位與取穴) 同印堂穴

主治) 半身不隨，面風游風

灸法) 灸二百壯

〔魚腰〕

位置) 位於頭面部眉弓中心點，眉毛中心凹陷處，正對直視時瞳孔，左右計二穴

取法) 眉毛之中間，瞳孔直上取之

主治) 眼生翳膜，結合膜炎，眼瞼緣炎，面神經麻痺，眼肌麻痺，目赤腫痛

鍼法) 沿皮斜刺向側方, 與額平面成三十度角, 可刺二至三分, 得氣時酸脹感向四外放射

[光明]

位置) 位於額部, 瞳孔正視時直上方眉毛之上緣

與經穴關係) 位於陽白穴直下 眉毛上緣

主治) 患眼偏正頭痛, 結合膜炎, 眼瞼緣炎, 眼肌麻痺

鍼法) 鍼一至二分 得氣時局部有酸脹感覺

[顛顛]

位置) 位於頭面部, 眉外端與眼外眥聯線之中點

取穴) 在眉與眼外眥中間

與經穴關係) 位於絲竹空穴與外眥聯線之中點

主治) 時邪溫病, 頭痛, 眩暈, 面神經麻痺, 眼病

鍼法) 鍼一至三分 得氣時局部酸脹

[魚尾(一名內瞳子膠)]

位置) 位於眼外眥外方約一分處, 左右計二穴

與經穴關係) 位於瞳子膠穴微內方

主治) 患眼偏正頭痛, 頭旋, 一切目疾, 面神經症 變及麻痺, 齒齦炎

鍼法) 鍼二至三分 得氣時局部有酸脹感覺

[太陽]

位置) 眉稜骨後一寸下陷中取之

與經穴關係) 位於絲竹空穴與瞳子膠穴聯線中點外方一橫指處

主治) 患眼偏正頭痛, 爛弦, 風見喎斜, 頭風, 目眩, 目澁, 麥粒腫及一切目疾

鍼法) 鍼三至五分, 得氣時局部有酸脹感覺, 刺皮靜脈微出血亦可, 禁灸

[當容]

位置) 位於頭顛部, 外眥平外方, 顛骨額突外緣凹陷中,

取穴) 眼外眥近後, 太陽穴稍下方,

與經穴關係) 位於瞳子膠穴之外方,

主治) 肝勞邪氣眼赤,

灸法) 灸百壯.

[鼻交頰中]

位置) 位於鼻背部正中線, 鼻骨基底之上方鼻骨間縫中是穴.

取穴) 以指從眉間沿鼻莖下按至鼻骨高處微上方之凹陷中取之.

主治) 腦溢血, 腦震蕩, 角弓反張, 癲風, 人事不省, 眩暈, 肝病, 口禁, 卒倒, 健忘, 善睡, 黃疸.

鍼灸) 鍼一至二分, 灸一至三壯.

3. 總括 및 考察

3.1. 眼鍼療法の 穴位

彭氏의 <眼鍼療法>에 論述한 眼鍼療法の 穴位는 모두 13個가 있었고, 眼鍼區區十三穴이라 總稱하였으며, 各各 肺區, 大腸區, 腎區, 膀胱區, 上焦區, 肝區, 膽區, 中焦區, 心區, 小腸區, 脾區, 胃區, 下焦區였다. 13個의 穴位는 모두 眼眶밖에 2mm되는 곳에 있었고¹⁾, 上眼眶에 있어서는 눈섭의 아래 1/3部分內에 位置하고 있었다²⁾. 그리고 每個의 穴位는 그 名稱대로 相應하는 經絡과 臟腑 및 身體 部位의 疾病을 治療하는 主治功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¹⁾.

肺區穴 : 肺經과 肺의 病症을 主治한다.

大腸區穴 : 大腸經과 大腸의 病症을 主治한다.

腎區穴 : 腎經과 腎의 病症을 主治한다.

膀胱區穴 : 膀胱經과 膀胱의 病症을 主治한다.

上焦區穴 : 上焦部位에 있는 臟腑(心肺)와 肢體의 病症을 主治한다.

肝區穴 : 肝經과 肝의 病症을 主治한다.

膽區穴 : 膽經과 膽의 病症을 主治한다.

中焦區穴 : 中焦部에 있는 臟腑(脾胃)와 軀幹의 病症을 主治한다.

心區穴 : 心經과 心の 病症을 主治한다.

小腸區穴 : 小腸經과 小腸의 病症을 主治한다.

脾區穴 : 脾經과 脾의 病症을 主治한다.

胃區穴 : 胃經과 胃의 病症을 主治한다.

下焦區穴 : 下焦部位에 있는 臟腑(腎膀胱)와 肢體의 病症을 主治한다.

이로부터 보아 眼鍼穴位의 主治作用은 十二經脈, 五臟六腑, 肢體百骸의 全身의 病症에 모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眼鍼穴位의 具體的인 臨床應用狀況을 볼 때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上焦區 : 中風, 半身不遂, 落枕, 頭痛, 眼瞼下垂, 電光性眼炎, 音啞, 喉痛, 齒痛, 耳聾耳鳴, 三叉神經痛, 面肌痙攣, 面癱, 項強, 五十肩, 上肢不能舉, 胸痛, 背痛등을 治療하는데 應用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中焦區 : 膈肌痙攣, 胃痙攣, 腰脇痛, 胃痛, 胰腺炎, 嘔吐 등의 治療에 應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下焦區 : 中風, 半身不遂, 急性扭傷, 痛經, 遺尿 또는 頻尿, 腰痛, 坐骨神經痛, 膝關節痛, 下肢痿軟, 月經不調, 陽萎 등의 治療에 應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肺區 : 鼻炎, 音啞, 喉痛, 老年慢性氣管炎 등의 治療에 應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大腸區 : 五十肩, 便瀉, 痢疾 등 病症의 治療에 應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腎區 : 遺尿 또는 頻尿, 腰痛, 尿路結石腰痛, 下肢痿軟, 神經衰弱, 月經不調 등의 治療에 應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膀胱區 : 後頭痛, 項強, 背痛 등의 治療에 應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肝區 : 降血壓, 遺尿 또는 頻尿, 目赤痛, 近視, 電光性眼炎, 耳聾, 耳鳴, 腰脇痛, 膽道蛔虫, 月經不調 등의 治療에 應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膽區 : 偏頭痛, 膽囊炎, 膽道蛔虫, 足跟痛 등의 治療에 應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心區 : 心律不齊, 舌痛, 胸痛 등의 治療에 應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小腸區 : 十二指腸球部潰瘍手術後遺症(上腹部隱痛)의 治療에 應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

脾區 : 眼瞼下垂, 鍼眼, 面肌痙攣, 胰腺炎 등의 治療에 應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胃區 : 胃痛, 嘔吐, 拒食症 등의 治療에 應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3.2. 眼周圍의 經穴과 奇穴

20種의 文獻資料에 對하여 調査한 結果, 十四經脈中에서 眼周圍에 있는 經穴은 總 7穴이 있었는데, 各各 足陽明胃經의 承泣과 四白, 足太陽膀胱經의 睛明과 攢竹, 手少陽三焦區의 絲竹空, 足少陽膽經의 瞳子髎와 陽白이다. 그리고 眼周圍에 있는 奇穴은 예로부터 내려온 것이 總 9穴이 있었는데 그 중 印堂과 曲眉는 同穴異名^{9,25)}으로 나타나 實際로는 總 8穴로 되고 各各 印堂(曲眉), 魚尾, 太陽, 魚腰, 鼻交頰中, 顴顙, 當容, 光明이다. 그리하여 總 15穴에 대하여 穴의 位置, 主治作用 및 臨床應用狀況 등을 調査하여 眼鍼療法의 穴位와 對照하여 그들의 相關性을 考察하여 보았다.

3.2.1. 眼周圍의 15穴의 位置

3.2.1.1. 承泣

《素問》〈氣府論〉에서 承泣의 位置에 대하여 “目下各一”⁶⁾이라고 하여 正確한 位置를 定하기 힘들었고 《甲乙經》以後의 文獻中에서는 “目下七分, 直目瞳子”^{7-10,14,16-17,23)}라고 描述한 것이 多數이고, 또 “目下七分, 直瞳子陷中”^{12,16,18-20,23)}이라고 “陷中”이란 두 字를 補充하여 說明한 것도 있었으며 《醫宗金鑑》에서는 다만 “承泣目下七分”²²⁾이라고만 하였다. 《驗穴學》에서는 承泣의 取法에 대하여 “正坐하여 兩目正視하고 瞳子以下 0.7寸 되는 眼球와 眶下緣의 사이에서 取穴한다.”²⁴⁾고 하였다. 以上の 內容들을 보면 承泣穴의 位置에 대하여 基本上으로 各家의 認識이 거의 비슷하였다. 즉 “目下七分, 直目瞳子”가 承泣穴의 位置라고 볼 수 있다.

3.2.1.2. 四白

《素問》〈氣府論〉에서 四白의 位置에 대하여 “面顴骨空各一⁶⁾”이라고 描述하였는데, “顴骨空”은 現代解剖學에서 말하는 “眶下神經孔”에 該當한다고 볼 수 있다. 《腧穴學》을 보면 四白穴을 取할 때 “當眶下孔凹陷處取穴²⁴⁾”이라 하였기에 古今의 見解가 一致함을 알 수 있다. 《甲乙經》에서는 “目下一寸, 向顴骨顴空⁷⁾”이라 하였고, 《經穴彙解》에서는 《甲乙經》에의 말을 收錄하여 “目下一寸, 面顴骨顴空²³⁾”이라 하였으며, 《千金要方》등에서는 “目下一寸”이라 하였고, 《銅人》등에서는 “目下一寸, 直目瞳子^{12,14,16,19~20,23)}”라 하였으며 《醫宗金鑑》에서는 “承泣目下七分尋, 再下三分名四白²²⁾”이라 하여 四白이 目下一寸에 있다고 하였고 《綱目》에서는 “目下二寸¹⁸⁾”이라 하였는데, 이는 分明히 잘못된 것이라고 思料된다. 따라서 四白은 “目下一寸, 直目瞳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2.1.3. 睛明

《素問》〈氣府論〉에서는 “目內眥各一⁶⁾”이라 하였고, 《甲乙經》등에서는 “目內眥外^{7,8,24)}”라 하였으며 《綱目》에서는 “目內眥頭外一分¹⁸⁾”이라 하였다. 多數의 文獻에서는 “目內眥^{9~12,14,16)}”라 하였고, 《神龍經》등에서는 “目內眥角^{15,22)}”이라 하였으며, 《醫學入門》에서는 “目內眥紅肉陷中¹⁷⁾”이라 하였다. 《腧穴學》에서는 睛明의 取法에 대하여 “於目內眥的外上方陷中取穴”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睛明穴이 “目內眥”에 있다는 것은 分明한 것이다.

3.2.1.4. 攢竹

《素問》〈氣府論〉에서는 “兩眉頭各一⁶⁾”이라 하였고, 《甲乙經》등에서는 “眉頭陷者中^{7~12,14,17~20,22,24)}”이라는 말들로 說明하였으며 《資生經》등에서는 “眉頭少陷宛宛中^{11,15,16,18)}”이라 하였다. 따라서 攢竹穴이 眉頭에 있고 약간 들어간 오목한 부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2.1.5. 絲竹空

《素問》〈氣府論〉에서는 “眉後各一⁶⁾”이라 하였고 《甲乙經》등에서는 “眉後陷者中^{7,24)}”에 있다고 하였으며 《千金方》등에서는 “眉後陷中^{8~12,14~16,18~20,22)}”이라고 하였고, 《玉龍經》에서는 “眉後入髮際陷中¹³⁾”이라 하였으며, 《入門》에서는 “眉尾骨後陷中¹⁷⁾”이라 하였다. 여기서 《玉龍經》의 “眉後入髮際陷中”은 穴이 髮際안에 있다는 뜻인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思料된다. 그리고 “腧穴學”에서는 絲竹空의 取法에 대하여 “在眉至外端凹陷處取穴²⁴⁾”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玉龍經》을 除外하고는 모두 같은 意味로 나타났다.

3.2.1.6. 瞳子髎

《內經》에는 瞳子髎라는 穴名은 보이지 않았다. 《甲乙經》등에서는 “目外去眥五分^{7~8,10,16,18~20,24)}”이라 하였고, 《千金翼方》등에서는 “目外眥五分^{9,11~12,14,17,22~23)}”이라 하였는데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玉龍經》에서는 “魚尾即瞳子髎, 在目上眉外尖¹³⁾”이라 하여 완전히 다른 位置로 되어 있는데 이는 絲竹空을 瞳子髎로 混同한 것 같다. 그리고 “腧穴學”에서는 瞳子髎의 取法에 대하여 “在目外眥外側, 眶骨外側緣凹陷中取穴²⁴⁾”이라 하였다. 以上을 보면 瞳子髎에 대한 論述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3.2.1.7. 陽白

《內經》에는 陽白이란 穴名이 보이지 않았다. 《甲乙經》등에서는 “眉上一寸直瞳子^{7~10,14,16~17,19~20,23~24)}”라 하였고 《資生經》등에서는 “眉上一寸直目瞳子^{11~12,18)}”라 하였으며 《醫宗金鑑》에서는 다만 “眉上一寸許”라 하여 位置의 說明이 分明치 않았다. “腧穴學”에서는 陽白의 取法에 대하여 “在前額, 於眉毛中點上一寸取穴²⁴⁾”이라 하였다. 따라서 古今의 認識이 거의 一致함을 볼 수 있다.

3.2.1.8. 印堂(一名曲眉)

20篇의 文獻中에 印堂을 言及한 것이 7篇 이었는데, 그 中에 相互引用한 것이 2篇 있어 實際로는 5篇밖에 없다. 《千金翼方》에서는 印堂의 位置에 대하여 “曲眉在兩眉間”⁹⁾ 이라고 하였고, 《玉龍經》에서는 “在眉中間宛宛中”¹³⁾이라 하였으며 《鍼灸大成》에서는 “在兩眉中陷中是穴”¹⁹⁾이라 하였으며, 《類經圖翼》에서는 “在兩眉中間”²⁰⁾이라 하였으며 《經外奇穴圖譜》에서는 “位於額部, 眉間正中點是穴”²⁵⁾이라 하였고 《經穴彙解》와 《腧穴學》에서는 各各 《千金翼方》과 《玉龍經》의 文을 引用하였다. 上述의 資料로부터 보면 印堂이 兩眉의 中間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1.9. 魚尾

4篇의 文獻에 記載되어 있었는데 《類經圖翼》에서는 “在目眥外頭”²⁰⁾라 하였고, 《經穴彙解》에서는 《類經圖翼》의 말을 그대로 引用하였고, 또 《銀海精微》의 말을 引用하여 “小眥橫紋盡處”²³⁾라 하였으며 《經外奇穴圖譜》에서는 “位於眼外眥外方一分處”²⁵⁾라 하였고, 또 “瞳子膠穴微內方”²⁵⁾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玉龍經》에서는 “魚尾即瞳子膠, 在目上眉外尖”¹³⁾이라 하였는데, 이는 絲竹空穴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이라고 思料된다. 그리하여 魚尾는 目外眥에서 약간 바깥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1.10. 太陽

《玉龍經》에서는 “太陽, 在額紫脈上”¹³⁾이라 하였고, 《鍼灸大成》은 “太陽二穴, 在眉後陷中, 太陽紫脈上是穴”¹⁹⁾이라 하였으며, 《經穴彙解》는 《鍼灸大成》의 文을 引用하였는데 “眉後陷中, 太陽紫脈上”²³⁾이라 하여 “太陽”을 “大陽”으로 잘못 쓴 것으로 思料된다. 또 《腧穴學》은 《聖濟總錄》의 말을 引用하여 “在眼小眥後一寸”²⁴⁾이라 하였고, 取法은 “正坐或側伏, 於眉梢與目外眥連線中點外開一

寸的凹陷中取穴”²⁴⁾라고 하였으며 《經外奇穴圖譜》는 “眉稜骨後一寸下陷中取穴”²⁵⁾이라 하였다. 總括하여 보면 《玉龍經》이 太陽을 額部에 있다고 한 외에 모두 眉後 또는 目外眥後의 오목한 곳에 있다고 보았다.

3.2.1.11. 魚腰

《玉龍經》에 “魚尾即瞳子膠, 在目上眉外尖, 鍼一分, 沿皮向內透魚腰, 瀉, 禁灸”¹³⁾라는 “魚尾”에 對한 論述이 있는데, 刺鍼할 때는 內側으로 魚腰穴을 向하여 水平으로 鍼을 놓으라 했으므로 魚腰穴이 “目上眉外尖”의 內側의 눈섭부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鍼灸大成》은 “魚腰二穴, 在眉中間是穴”¹⁹⁾이라 하여 穴이 眉(눈섭)의 中心部位에 있다고 밝혔다. 《經穴彙解》는 《鍼灸大成》의 內容을 引用하여 “魚腰, 眉中間”²³⁾이라 하였고, 《腧穴學》은 《醫經小學》의 內容을 引用하여 “魚腰, 在眉中間”²⁴⁾이라 하였으며 取法에 대하여서는 “正坐 혹은 仰臥하여, 兩目は 水平으로 앞으로 보며 眉毛中間에서 瞳孔과 바로 對應하는 부위에서 取穴한다.”²⁴⁾하였고 《經外奇穴圖譜》는 “位於頭面部眉弓中心點, 眉毛中心凹陷處, 正對直視時之瞳孔”²⁵⁾이라 하였다. 따라서 各 文獻의 論述은 一致하였다고 볼 수 있다.

3.2.1.12. 鼻交頰中

《類經圖翼》과 《經穴彙解》는 《千金翼方》의 內容을 引用하였는데, 位置에 대한 說明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經穴彙解》에서는 本穴의 穴名에 對하여 解釋을 하였는데 바로 “按經脈篇曰, 足陽明之脈, 起於鼻之交頰中, 是其名所出”²³⁾이라는 것이다. 本穴의 原始的인 來源인 《千金翼方》에서도 穴의 位置에 대한 說明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穴이 바로 頰의 中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鼻之交頰이란 穴名속에 穴의 位置까지 包含되어 있다는 것이다. “頰은 古代人體體表部位의 名稱으로서 下極이라고 부르고

俗稱으로는 鼻梁 또 山根이라 부르며 지금은 鼻根이라 한다.”²⁴⁾ 다시 말하면 “兩目之間, 鼻柱之上凹陷外”²⁴⁾이다. 《經外奇穴圖譜》는 “位於鼻背部正中線, 鼻骨基底之上方鼻骨間縫中是穴”²⁵⁾이라 하였는데, 같은 意味라고 볼 수 있다.

3.2.1.13. 顛顛

《千金翼方》에서 來源한 穴로서 原文에서는 “在眉眼尾中間, 上下有來去絡脈”⁹⁾이라고 하였고, 《類經圖翼》과 《經穴彙解》는 모두 《千金翼方》의 內容을 그대로 引用하였다. 《經外奇穴圖譜》는 “眉外端與眼外眥聯線之中點”²⁵⁾에 顛顛穴이 있다고 하였는데, 모두 같은 部位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1.14. 當容

《經穴彙解》에는 《千金要方》의 말을 인용하여 “穴在眼小眥近後하고 當耳前三陽三陰之會處하며 以兩手按之하면 有上下橫脈則是이다.”⁸⁾고 하였고 또 “與耳門木對是也”⁸⁾라고 하였다. 《千金翼方》은 當容이 “在眼後耳前三陰三陽之會處, 以手按之有上下橫脈, 是與耳門相對也”⁹⁾라고 하였는데 《千金要方》과 若干의 文字上的 差異가 보였다. 《經外奇穴圖譜》는 “當容在眼外眥近後, 太陽穴稍下方”²⁵⁾이라고 하였고 또 “位於瞳子膠穴之外方”²⁵⁾이라고 하였다.

3.2.1.15. 光明

《經穴彙解》는 《銀海精微》의 內容을 引用하여 “對瞳人上하고 眉中에 있는 것은 光明穴이다”²³⁾고 하였고, 《經外奇穴圖譜》는 “位於額部, 瞳子膠正視時直上方眉毛之上緣”²⁵⁾이라고 하였고, 또 “陽白穴의 直下에 眉毛의 上緣에 있다”²⁵⁾고 하였다. 上述의 內容은 모두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

以上으로 7個의 經穴과 8個의 奇穴의 位置에 대하여 總括하고 考察하였는데 結果, 眼眶內에 있는 穴이 承泣, 睛明이었고, 眼眶밖

에 眼廓上 또는 眼廓의 邊緣에 있는 穴이 魚腰, 魚尾, 顛顛, 光明, 四白, 瞳子膠이며 眼眶 및 眼廓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서 있는 穴이 攢竹, 陽白, 絲竹空, 太陽, 印堂, 鼻交頰中, 當容이다. 15個의 穴位와 眼의 經區의 關係를 살펴보면 眼의 經區와 관계되는 것이 承泣과 睛明밖에 없었고, 承泣은 5區(中焦)와 6區(心小腸區)의 中間部位에 있었고 睛明은 8區(下焦區)內에 있었다. 그리고 眼鍼療法の 穴位인 眼鍼區十三穴과의 相關性을 살펴보면 眼鍼療法の 穴位의 確定標準에 符合되는 것은 한개의 穴도 없었는데, 그 中에서도 魚尾, 魚腰, 顛顛, 光明, 承泣, 四白, 瞳子膠는 眼鍼療法の 穴位와 比較적 接近 또는 相對的으로 接近되는 部位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光明과 魚腰는 肺大腸區穴과 腎膀胱區穴의 交點의 外側에 있었고, 顛顛는 上焦區穴의 外側에 있었으며 瞳子膠는 上焦區穴과 肝膽區穴의 交點의 外側에 13mm되는 部位에 있었다. 承泣은 心小腸區穴과 中焦區穴의 交點의 內側에 2mm되는 곳에 있었고 四白은 그 交點의 外側에 7mm되는 곳에 있었다. 그리고 魚尾는 “外眥外方一分處”²⁵⁾에 있어 上焦區穴과 肝膽區穴의 交點의 外側에 1mm되는 곳에 있어 眼鍼穴位와 제일 가까운 部位에 있었다. 나머지의 穴인 攢竹, 陽白, 絲竹空, 太陽, 印堂, 鼻交頰中, 當容은 비록 眼周圍에 位置하고 있지만 眼鍼穴位와 位置上的 相關性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15個의 穴位의 主治病症

3.2.2.1. 承泣의 主治病症

文獻中에서 目不明^{7~8.10~11)}, 淚出^{7~12.16.19~20.24)}, 目眩槽^{7~8.10~11)}, 瞳子癢^{7~8.10~11.16.18~20)}, 遠視眩暈^{7~8.10~12.16.18~20)}, 昏夜無見^{7~8.10~11.16.18~20.24)}, 目瞶動^{7~12.16.18~19.24)}, 與項口參相引^{7~8.10.16.18~19)}, 喎僻^{7~8.10~12.18)}, 不能言^{7~8.10~11.16.18~19)}, 視眼喎不正⁹⁾, 口喎^{9.11)}, 眼赤痛^{9.11~12.16.19.24)}, 目眩暈⁹⁾, 目險赤⁹⁾, 多眵¹¹⁾, 內眥赤痛養^{11~12)}, 生

白膚翳¹¹⁾, 口眼喎斜^{11.16.18~20.24)}, 面葉牽動^{9.11~12.16.19)}, 耳鳴耳聾^{16.19)}, 眼臉潤動²⁴⁾ 등의 病症을 治療하는 作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2. 四白의 主治病症

文獻上에서 目痛口僻^{7~8.10~11.16.18~19)}, 淚出^{7~8.10~11.16~19)}, 目不明^{7~8.10~11.17~19)}, 多眵^{8.11)}, 內眥赤痛^{8.11.17)}, 目癢^{8.11.16~17.19.24)}, 生白膚翳^{8.11~12.17.19~20)}, 耳痛鳴聾^{8.11)}, 口眼喎不能言^{8)11.16.19~20)}, 頭痛, 目眩^{11~12.16~17.19)}, 微風目潤動不息^{12.17)}, 目赤生翳, 潤動流淚眼弦癢²⁰⁾, 目赤痛, 目翳, 眼臉潤動, 迎風流淚, 頭面疼痛, 口眼喎斜, 眩暈²⁴⁾ 등의 病症을 治療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3. 睛明의 主治病症

文獻中에서 目不明^{7.9~10.20.24)}, 惡風^{7.10~12.16.19)}, 目淚出^{7.10~12.16.19)}, 憎寒^{7.10.16.19.24)}, 目痛^{7.13.19.20)}, 目眩^{7.16.19~20.24)}, 目眈眈無所見^{7~8.10~12.16.19)}, 目內眥癢痛^{7~8.10~12.16.18~20)}, 淫膚白翳^{7~12.16.18~20)}, 目闇及眵⁹⁾, 雀目冷淚^{9.15~16.19~20)}, 努肉出⁹⁾, 頭痛^{10.16.19~20.24)}, 目眩瞽^{10~11)}, 目遠視不明^{11.16.19)}, 小兒雀目昏眼^{11~12.16.19~20)}, 目赤^{11.18~19)}, 大人氣眼冷淚瞶目視物不明¹²⁾, 大眥努肉侵睛^{12.16.18~20.24)}, 目翳膜^{15.19.24)}, 迎風有淚^{15~16.19~20.24)}, 風生卒生翳膜兩目疼痛不可忍, 目昏^{15.19)}, 目眥攀睛¹⁶⁾, 瞳子瘴^{16.19)}, 內眥赤種^{18.24)}, 羞明怕日並昏^{18~19)}, 風沿眼紅澁爛, 眼赤暴痛, 目內眥痛, 目生內障, 目患外障, 侵睛雀目, 大小氣眼冷淚¹⁹⁾, 近視夜盲¹⁹⁾, 色盲²⁴⁾ 등의 病症을 治療하는 作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4. 攢竹의 主治病症

文獻中에서 頭風痛^{7~8.10~11.15~16.19.24)}, 眉頭痛, 鼻齟^{7.10~11)}, 善嚏^{7.10.16.19)}, 目如欲脫^{7.10)}, 汗出寒熱^{7~8.10.19)}, 面赤^{7.10.13)}, 頰中

痛^{7~8.10~11.16)}, 項椎不可左右顧^{7.10)}, 項強急痛不可以顧⁸⁾, 目系急, 目上插^{7.10~11)}, 心中煩⁸⁾, 癩發癧癧, 狂走不得臥, 惡風寒^{8.10~11)}, 目眈眈不明^{8~12.16.19.24)}, 目中熱痛急瞶⁹⁾, 意中煩, 互相反折, 戴眼及眩, 痔痛¹⁰⁾, 神邪鬼魅^{11.16.19)}, 癩疾嘔¹¹⁾, 小兒急慢驚風^{11.19)}, 頭目風眩^{11.16.19.24)}, 尸厥, 淚出目眩瞽^{11.16.19)}, 眼潤動^{11~12.15~16.19.24)}, 目眈眈無遠視, 昏夜無視, 鼻胤涕出¹¹⁾, 眼赤痛^{11~12.16.19.24)}, 眉目疼痛^{13.16)}, 口風頭暈面赤不欲人言¹³⁾, 腦昏目赤^{13.15~16.19)}, 身熱頭痛^{15.19)}, 癩癧¹⁵⁾, 心邪癩狂, 面腫^{15~16.19)}, 醉後頭風^{15~16.18~19)}, 頭風冷淚出^{15~16.19)}, 目赤膚翳, 赤翳^{15.19)}, 目昏^{15~16.19)}, 瞳子癢, 不得臥, 面痛, 目中漠漠, 肝氣實風熱膽熱血瘀血實氣壅^{16.19)}, 頭風嘔吐, 頭重如石¹⁸⁾, 暴盲不見物, 眉間痛, 羞明怕日^{18~19)}, 眉稜骨痛^{18.24)}, 脇痛, 癩邪, 目疼頭痛, 癩癧, 迎風冷淚, 眼赤暴痛, 傷寒頭痛¹⁹⁾, 迎風流淚, 近視, 面癩²⁴⁾ 등의 病症을 治療하는 作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5. 絲竹空의 主治病症

文獻上에서 目眩^{7.10~12.15~16.19~20.24)}, 頭痛^{7.10~13.15.19~20.24)}, 小兒躄風^{7.10)}, 目上插^{7~8.11)}, 癩疾嘔沫狂熱瘕互引^{7.11)}, 目眈眈不明^{7.11.16.19~20)}, 惡風寒^{7~8.11.16.19)}, 目中赤^{10.15~16.19~20)}, 風癩疾狂煩滿^{10~11)}, 涎沫^{11.19)}, 風癩目戴上不識人^{11~12.15~16.19~20)}, 嘔沫¹¹⁾, 眼睫毛倒^{11~12.15~16.19)}, 發狂吐涎沫發即無時^{11~12.15~16.19~20)}, 偏正頭風^{15~16.18~20)}, 目昏^{15.19)}, 口喎眼喎^{15.19)}, 肝氣實風熱痰熱血瘀血實氣壅¹⁶⁾, 牙疼^{19.24)}, 醉後頭風¹⁹⁾, 目赤痛, 眼臉潤動, 癩癧²⁴⁾ 등의 病症을 治療하는 作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6. 瞳子膠의 主治病症

文獻中에서 青盲無所見^{8.10~12.16.19~20)}, 目中淫膚白膜覆^{8.10.12.16.19)}, 目淚出^{8.11.20)}, 多眵^{8.11.16.19~20)}, 瞽^{8.11.16.19)}, 內眥赤痛癢^{8.11)},

生白膚翳^{8,10-11)}, 遠視眩暈^{10,12,16,19-20,25)}, 目中翳膜^{11,20,24)}, 目外眥皆赤痛^{11-12,16,20)}, 頭痛^{12,16,19-20,24)}, 目生翳¹⁵⁾, 目癢^{16,19-20)}, 喉閉^{16,19)}, 眼紅腫¹⁸⁾, 羞明怕日^{18,24)}, 眼久病昏花¹⁸⁾, 赤痛淚出, 目生內障^{19,24)}, 內眥癢, 口眼喎斜, 眼閉¹⁹⁾ 등의 病症을 治療하는 作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7. 陽白의 主治病症

文獻中에서 頭目瞳子痛不可以視^{7,10,18)}, 挾項強急不可以顧^{7,10,18)}, 目系急, 目上插^{8,11,17)}, 背膝寒慄, 重衣不得溫^{11-12,16-17,19-20)}, 目瞳子痛癢^{11,16-17,19)}, 頭目痛目眇^{11-12,16-17,19-20)}, 遠視眩暈, 昏夜無見^{11,16,19)}, 頭風如破眉目間痛¹²⁾, 目上視^{16,19)}, 昏蒙^{17,20)}, 頭痛目痛, 外眥疼痛, 眼瞼眦動, 省目²⁴⁾ 등의 病症을 治療하는 作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8. 印堂(一名曲眉)의 主治病症

文獻의 內容을 綜合하여 보면 印堂은 주로 面上游風如蟲行, 習習然起, 則頭旋眼暗, 頭中溝壟起^{9,23)}, 頭風嘔吐眼昏花, 子女驚風¹³⁾, 醉後頭風^{15-16,19)}, 驚搐^{16,19-20,25)}, 頭痛嘔吐^{18,24-25)}, 頭重如石^{18,25)}, 小兒驚風^{19-20,24-25)}, 中風風癱, 癱瘓等症¹⁹⁾, 鼻衄不止^{19,24)}, 鼻淵^{20,24-25)}, 目疼, 急慢驚風²³⁾, 兩眉角痛不已^{23,25)}, 頭暈, 目赤腫痛, 不寐²⁴⁾, 重舌, 產婦血暈, 顏面疔瘡, 三叉神經痛^{24,25)}, 漏經, 傷寒衄血, 久年頭痛, 眩暈, 眼病, 子癩²⁵⁾ 등의 病症의 治療에서 나타났다.

3.2.2.9. 魚尾의 主治病症

文獻中에서 魚尾는 주로 眼痛¹³⁾, 兩眼紅腫痛難熬, 怕日羞明心自焦¹⁹⁾, 目證²⁰⁾, 眼戴精上插²³⁾, 患眼偏正頭痛, 頭旋, 一切目疾, 面神經痙攣及麻痺, 齒齦炎²⁵⁾ 등의 病症의 治療에 나타났다.

3.2.2.10. 太陽의 主治病症

文獻中에서 太陽은 주로 眼目暴腫痛眼窠紅¹³⁾, 眼睛紅腫痛^{13,19,24)}, 目疼, 血翳¹⁶⁾, 頭風^{18,25)}, 眼紅腫及頭, 怕日羞明, 眼痛忽然血貫睛, 羞明更澁最難睜¹⁹⁾, 眼紅腫及頭痛²³⁾, 偏正頭痛, 目眩, 目澁, 口眼喎斜²⁴⁻²⁵⁾, 牙痛, 三叉神經痛²⁴⁾, 麥粒腫, 一切目疾²⁵⁾에 使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11. 魚腰의 主治病症

文獻에서는 주로 本穴이 眼生垂廉翳膜¹⁹⁾, 目赤腫痛, 目翳²⁴⁻²⁵⁾, 眼瞼瞤動, 眼瞼下垂, 口眼喎斜, 眶上神經痛²⁴⁾, 結合膜炎, 眼瞼膜炎, 面神經麻痺, 眼肌麻痺²⁵⁾ 등의 病症의 治療에 使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3.2.2.12. 鼻交頰中

文獻에서는 주로 本穴이 癩風角弓反張, 多睡, 健忘, 口禁悶倒不識人^{9,25)}, 卒風, 心中憤憤, 黃疸急痛, 八種大風⁹⁾, 腦溢血, 腦震蕩, 眩暈, 肝病, 黃疸²⁵⁾ 등의 病症의 治療에 使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3.2.2.13. 顴顙의 主治病症

文獻에서는 本穴이 주로 痘氣溫病^{9,20)}, 馬黃痘通身並黃語言已不轉⁹⁾, 四時寒暑所苦痘氣溫病, 時邪溫病, 頭痛, 眩暈, 面神經麻痺, 眼病²³⁾ 등의 病症의 治療에 使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3.2.2.14. 當容의 主治病症

文獻에서는 本穴이 時邪肝氣眼赤^{8-9,25)}를 治療하는데 使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3.2.2.15. 光明의 主治病症

文獻에서는 光明이 患眼偏正頭痛, 結合膜炎, 眼瞼緣炎, 眼肌麻痺²⁵⁾를 治療하는데 使用된 것으로 나타났다.

以上으로 15個의 穴位의 主治病症에 대하여 總括하고 考察하였는데,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A. 上述한 15個의 穴은 주로 頭面部の 局部疾患에 많이 사용되었고, 특히 眼科疾患에 重要な 主治作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頭面部の 局部疾患外의 內科 등의 疾患에도 主治作用이 있다는 文獻 內容은 아주 드물게 몇 개의 條目으로만 나타났다. 즉 喎僻不能言, 眩暈, 癩癩, 狂走不得臥, 小兒急慢驚風, 癩疾嘔吐, 脇痛, 小兒躄風, 項強, 背膝寒慄, 重衣不得溫, 面上游風如蟲行, 中風風癩癰癢等症, 重舌, 産婦血暈, 子癇, 癩風角弓反張, 羊鳴, 多睡, 健忘, 心中憤憤, 卒風口噤, 悶倒不識人, 黃疸急痛, 八種大風, 腦溢血, 腦震蕩, 肝病, 溫病 등이다.

眼鍼療法の 穴位와 比較하여 보면 上述의 15個의 穴位의 主治作用과 範圍는 거의가 頭面部 疾病에 限定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眼鍼區十三穴이 頭面部 疾病을 包括한 全身疾病에 모두 適用된다는 特點과 많이 差異가 있다고 思料된다. 특히 眼鍼療法은 眼部, 頭面部的 局部疾患보다 遠端의 病症인 中風半身不遂 등 麻痺症에 效果가 좋은 것으로 臨床에서 많이 報道되는데, 眼周圍의 15個穴로 中風을 治療한 記載는 거의 없다 싶어 하여 한두 곳 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것도 眼眶에서 많이 떨어진 顔面部 및 額部の 中心에 있는 鼻交頰中과 印堂(曲眉) 두 穴에서만 限하여 나타났으며, 經絡上으로 이 두 穴은 모두 特殊性을 가진 督脈위에 位置하고 있는 特殊한 穴들이다. 따라서 文獻上의 眼周圍 15穴과 眼鍼療法の 眼眶區十三穴은 그 主治作用과 主治病症등에 있어서 共同性은 적고, 差異性은 深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結論

眼鍼療法の 穴位와 眼周圍 經穴 및 奇穴의 位置, 主治作用, 臨床應用 등에 對하여 文獻考察을 하고, 그 相關性에 대하여 比較分析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眼鍼療法の 穴位는 “眼鍼區十三穴”이

라고 總稱하며, 한 개의 點이 아니고 작은 區域이며, 各各 肺區, 大腸區, 腎區, 膀胱區, 上焦區, 肝區, 中焦區, 心區, 小腸區, 脾區, 胃區, 下焦區이다.

2. 眼鍼區十三穴의 位置는 眼眶밖에 2mm 되는 部位에 있는데 眼眶의 上部에서는 눈섭의 아래 1/3부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眼鍼區十三穴의 主治作用을 보면 各個의 穴區와 對應되는 經絡, 臟腑, 또는 人體 部位에 모두 治療作用이 있어 眼科를 包括한 各科의 疾病에 널리 使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眼周圍 經穴은 總 7穴로, 各各 足陽明胃經의 承泣과 四白, 足太陽膀胱經의 睛明과 攢竹, 手少陽三焦經의 絲竹空, 足少陽膽經의 瞳子髎와 陽白이다.

5. 眼周圍 奇穴은 歷代醫書에 나타난 것이 總 9穴이었고 印堂과 曲眉가 同穴異名이므로 總 8穴로, 各各 印堂(曲眉), 魚尾, 太陽, 魚腰, 鼻交頰中, 顛顛, 當容, 光明이다.

6. 15個의 眼周圍 經穴 및 奇穴과 眼鍼區十三穴의 位置上 相關性을 보면 眼鍼穴位와 完全히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그 相互間의 位置關係를 보면 魚尾가 上焦區와 肝膽區의 交點에서 外側 1mm되는 곳에 있어 眼鍼穴位와 가장 相關性이 密接한 것으로 나타났다. 承泣은 心小腸區와 中焦區의 交點의 內側에 2mm되는 곳에 있었으며, 四白은 그 交點의 外側 7mm되는 곳에 있었고, 睛明은 下焦區의 內側에 있었다. 그리고 魚腰, 光明은 肺大腸區와 腎膀胱區의 交點의 外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顛顛는 上焦區의 外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瞳子髎는 上焦區와 肝膽區의 交點의 外側 13mm 되는 部位에 있었다. 그 外의 穴들은 眼周圍에 있지만 眼鍼穴位와 位置상으로 아무런 相關性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眼周圍 經穴 및 奇穴은 주로 眼科疾患을 中心으로 頭面部的 局部病症에 治療作用이 있었다. 그리고 간혹 中風, 眩暈, 背膝寒

慄, 黃疸, 腦溢血 등 內科, 神經科 등의 疾病에 대한 主治作用의 記載가 보였으므로 그 穴들의 主治病症은 거의 限定되어 있어 한 가지의 局部治療法으로만 볼 수 있고, 後者는 한 가지의 完整한 獨立的인 全身的인 治療法이라고 볼 수 있다.

以上에서와 같이 歷代文獻上에는 眼鍼療法の 穴位의 位置와 主治作用, 主治病症에 대한 論述이 없었고, 眼周圍穴位中에서도 相似한 것이 없었다. 따라서 眼鍼療法の 穴位는 獨創的인 것이며 眼鍼療法은 전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創造發明한 새로운 治療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臨床各科의 病症에 널리 適用되므로 臨床應用의 價値가 크고 앞으로 進一步의 研究가 必要하며, 특히 各 穴區의 穴性, 定位의 科學性 및 經絡學說로서 이런 穴性에 대한 理論的 解釋 그리고 具體的인 臨床研究와 開發이 더욱 必要할 것으로 思料되고, 다음에 持續的으로 研究해 나갈 方向으로 定하기로 한다. 本人의 認識水準上의 制限으로 本 研究가 內容上 및 研究方法上 많은 不足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여러 先學者와 同道들의 眞摯한 批評과 指摘을 期待한다.

參 考 文 獻

1. 彭靜山, 眼鍼療法,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0年, 序言, 內容提要, pp.1~5, p.14, pp.26~27, p.31, p.44, pp.46~47, pp.49~54, p.61.
2. 彭靜山, 眼鍼療法病案選, 遼寧中醫, 1977年, 第二期, pp. 46~47.
3. 王肯堂, 六科證治準繩, 서울, 大星文化社, 1992年, pp.418~421.
4.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年, pp.435~436.
5.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年, p.86, p.478.
6.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素問語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年, p.70, p.332, p.324, p.325, p.327, p.328.
7. 山東中醫學院, 鍼灸甲乙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年, p.322, pp.363~366, p.931, p.1275, pp.1441~1442, p.1487.
8.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2年, pp.874~875, pp.194~195, pp.929~930, pp.904~905, p.907.
9. 孫思邈, 千金翼方, 서울, 大星文化社, 1989年, pp.308~309, pp.322~323.
10. 王燾, 外臺秘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92年, p.607, p.614, p.619, p.629.
11. 王執中, 鍼灸資生經, 서울, 一中社, 1991年, 第一卷 pp.13~17, 第四卷 pp.12~13, p.17, pp.19~21, p.25, pp.33~35, 第五卷 p.34, 第六卷 pp.1~3, p.21, p.23, p.27, pp.29~30, p.35.
12. 王惟一, 銅人腧穴鍼灸圖經, 鍼灸醫學典籍大系 第9卷, 日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昭和五十四年, pp.71~74, p.76.
13. 王國瑞, 扁鵲神應鍼灸玉龍經, 서울, 一中社, 1992년, p.3, pp.5~7, p.26, p.74, p.80.
14. 滑伯仁, 十四經發揮, 鍼灸醫學典籍大系 第10卷, 日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昭和五十四年, p.37, p.60, p.81, p.84, p.85.
15. 陳會, 神應經, 鍼灸醫學典籍大系 第10卷, 日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昭和五十四年, p.35, p.69, p.72, p.87, p.90, pp.103~106, p.108, p.110, p.112, p.130.
16. 高武, 鍼灸聚英發揮, 鍼灸醫學典籍大系 第11卷, 日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昭和五十四年, p.77, p.78(卷之一), pp.149~150(卷之二), pp.234~235(卷之三), p.243, pp.149~150(卷之三), p.278, p.283, p.295(卷之八), p.281, pp.

- 307~309, pp.311~313(卷之八), p. 326(卷之八), p.64, p.200, p.206, pp.209~210, p.212, p.219, p.231~232(以上 卷之五, 卷之七), p.332, p.335(附辯).
17. 李挺, 編註醫學入門, 서울, 연합의서, <內集卷一> p.251, p.263, p.279, pp. 280~281, p.512.
18. 樓英, 醫學綱目,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p.244~245, p.323, p.416, p.417, pp.437~438, p.447, p.525, pp.532~533, p.524, pp.889~890.
19. 楊繼洲, 鍼灸大成校釋, 서울, 大星文化社, 1993年, p.34, p.163, p.213, pp. 230~231, p.234, p.238, p.244, pp. 264~265, pp.287~290, pp.307~308, p.319, p.540, pp.750~751, pp.826~828, p. 902, p.909, pp. 915~916, p.1032, p.1035, pp.1044~1045, p.1106, p.1119, p.1128, p.1130, pp.1135~1136, pp.1148~1153, p.1173, p.1267, p.1333.
20.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92年, p.94, p.118, p.140, p.169, p.171, p.203~204, p.226.
21. 張璐, 張氏醫通,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年, p.376.
22. 吳謙等, 醫宗金鑒,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年, p.2152, p.2172, p. 2188, p.2229.
23. 南陽原昌克, 經穴彙解, 鍼灸醫學典籍大系 第20卷, 日本, 出版科學總合研究所, 昭和五十四年, p.77, p.81, p.85(卷一), p.88, p.109, p.130(卷六), pp.172~176, p.182.
24. 楊甲三 主編, 腧穴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年, p.42, pp.78~78, pp.113~114, p.118, pp.154~155, p.192.
25. 郝金凱, 鍼灸經外奇穴圖譜,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3年, pp.71~72, pp. 103~108, p.109.